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基道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一六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伊首相의 煩悶
進退維谷에선伊太利

一

聯盟側의 和協提案을 修正附로 受諾할듯이 傳하든 伊太利政府는 마츰내 和協案을 全然 一蹴해버리고 旣定方針대로 邁進할것을 決議하얏다。旣定方針이란것은 에디오피아를 征服하고 에디오피아에 伊太利의 植民政府를 樹立하는것이다。그러나 아무리 雨期때문에 軍事行動을 始作치 못하얏다 할지라도 昨今의 報道는 이미 雨期가 지나고 灼熱이 甚하다하는데 아직것 武力行動을 始作햇다는 報道를 듯지 못한것은 伊太利에 多少 躊躇의 빗치 잇는것이 아닐가。

二

伊太利는 今春 佛伊羅馬協定에 든든한 힘을 어더가지고 에디오피아征服을 決意하얏섯다。그리하야 이미 二十萬의 大軍을 動員하고 數億의 大金을 投하야 이미 萬般戰備는 다 具備하얏다。그런데 意外에 英國의 態度가 强硬하야 萬一 伊太利가 武力行使를 하면 英國도 武力으로써 이것을 制裁할 決心을 뵈이고잇스며 굿게 미덧든 佛蘭西도 最近은 英國의 威脅때문에 한풀 꺽긴 感이보이니 서릅게 에디오피아를 攻擊하다가 英國의 精銳한 空海軍에게 本志를 挫折할 뿐아니라 敗戰의 慘敗를 본다하면 그야말로 伊太利의 悲運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뭇솔리니의 前途도 카이젤이나 나폴레옹三世의 前轍을 밟지 안홀수업슬것이다。어찌 武力行動을 躊躇치 안흐리오。

三

그러나 생각하면 파씨스트政權을 樹立한지 이미 十三年、그간 무首相의 一言一動은 六千萬 伊太利人의 寸分을 어기지 못하는 命令、導標가 되엇섯다。이제 武力征服을 宣言하고 이미 二十萬의 大軍을 出動하고 그리고 時間만 苦待하는 兵士에게 征服斷念을 發表할것가트면 그의 威令은 서지 안흘뿐 아니라、가뜩이나 國內的 財政問題等으로 漸次 不滿이 生해오기 始作한 人民에게 어떠케 對하랴。그는 內로 經濟를 難收拾하고 外로 海外進出을 하야 써 一石二鳥의 結果를 매즈랴햇섯는데 萬一 이것이 수포에 도라갈진대 對에反感은 뭇솔리니首相에게로 向하지 안흘수업다 이제 即時 叛亂이 이러난다 할수는 업다할지라도 未久한 將來에 叛亂의 原因이 될것은 推測키 不難하다。무首相의 煩悶은 여기에 잇다。

四

進退維谷이란 말은 뭇솔리니首相에 對한 適言이다。그는 나아가 에디오피아를 攻略할것인가、물러가 兵士와 人民을 慰撫할것인가。뭇솔리니首相의 唯一의 方策은 英國으로하야금 伊太利의 行動을 一部分이라도 是認케할만한 諒解를 求하는것이나、聯盟으로하야금 伊太利에 體面을 직혀줄만한 和協案을 提出케할것이다。그러나 前者는 거이 絶望的 狀態요、後者도 和協失敗報告書의 採擇으로 거이 無望狀態다。남은것은 勸告案의 作成과 制裁의 發動이다。伊太利는 果然 制裁바들 覺悟하고 敢히 軍事行動을 斷行할것이나、聯盟의 脫退만으로써 武力行動의 機會는 口實을 지어 延期할것인가。무首相의 苦悶은 그 絶頂에 達햇다 하겟다。

今後和協工作은 全然不必要視!
伊에兩國主張을叙述한後
五人委員會報告全文

五人委員會報告書 二十五日公表

【쥬네브二十四日發聯合】五人委員會의 報告書는 二十四日 發表될 豫定이어든바 事情에 依하야 同日은 一切 發表를 中止하고 二十五日 發表할 豫定이다

【쥬네브二十五日發聯合】聯盟理事會는 二十五日午前五人委員會의 報告書를 發表하엿다 報告書는 委員長데、마다리아가氏를爲始하야 라발佛首相、이든無任所相、루슈티、아라스土耳其外相 베크波蘭外相의 署名으로되어 二十六日의 聯盟 理事會에 提出할것인데 五人委員會의 報告는 먼저 一部에서 委員會의 任命事情과 提案의 基礎가될 原則을 細述하야 九月六日의 聯盟理事會에서 英佛波土西五個國으로부터 委員을 任命하야 八月十日의 決議에 따라 伊에兩國의紛爭을 全面的으로 檢討하야 和協解決에 努力한 旨를 宣明한後 今日까지의 紛爭當事國間에 行한 和協工作의 經緯를 述하고 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이 如何한 和協試案에 對해서도 受諾不可能의 旨를 表明한 事情을 說明하야 委員會는 벌서 和協工作을 遂行할 餘地가 업다고 認定하게된것을 報告한것이다

▲伊太利代表部와의折衝經過

伊太利代表 알로이지男은 五人委員會의 委員長 데、마다리아가氏에게 對하야 口頭로써 大要 如左한 批判을 開陳하엿다 即

一、에디오피아政府는 聯盟加入에 當하야 誓約한 義務를 遂行치 아니한 事實을 伊太利政府는 特히 摘發注意 한데不拘하고 委員會는 右에 對하야 充分한 考慮를 하지안햇다

一、에디오피아는 特定條件下에 聯盟에 加入하는것을 許容햇고 또 今日까지 右條件을 完全히 履行치안햇다 따라서 벌서 聯盟의 成員인 資格을 가지지못할것임에도 不拘하고 五人委員會는 右事實에 關해서도 또한 充分한 注意를 하지안햇다

一、에디오피아國은 隣國에 對하야 危害를 加할수업슬만한 地位에 두지안흐면 안된다 또 그文化의 水準向上을 爲하야 同國의 行政組織을 改革할必要가잇다

一、現行聯盟規約은 聯盟加入에 基한 權利만을 主張하야 國家의 境遇는 考慮에 너치안햇다 따라서 伊太利政府의 見解에 依하면 에디오피아 問題는 聯盟規約으로서는 解決不可能이라고 생각한다

一、聯盟規約의 運用에 依하야 萬若某種의 强力性을 認定하고 例컨대 委任統治制度로서 具體化되고잇슴과 如한 聯盟原則에 準하는 融通性이 許容된다면 本問題와 如한것도 解決의 可能性은 더컷슬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委員會는 伊太利政府에게만 東阿政策에 對하야 極히 嚴하게 規約適用을 主張하고잇는것은 解決을 困難케 만들지 안흘수업다

一、委員會和協試案은 에디오피아國에 對한 行政改革及技術的援助를 提出하엿다 如斯한 援助는 에디오피아의 實情에 即하지아니한것이다 從來 에디오피아에서 外國顧問專門家가 行한 實情에 微하더라도 그結果는 부진엇시 에디오피아로하여곰 그때 特히 伊太利領 植民地를 脅威하게되어 特히 今次委員會試案이 에디오피아政府에의 援助만을 强調하고 그軍隊의 統制에 對해서는 言及치안코 이것을 依然 에디오피아政府의 統制下에 放置하고잇는것은 伊太利政府는 一層 危懼의 念이 업슬수업다

一、伊太利政府는 一九○六年十二月의 에디오피아에 對한 英佛伊三國協定에 依하야 爲先에리트리아로부터 伊領소말리란드를 連絡하는 鐵道敷設權을 가지고잇다 五人委員會의 和協案은 이三國協定에 基한 特殊的 伊、에兩國關係를 全然 無視하엿다

一、伊太利政府는 또 英佛兩國의 提案인 領土調整의 提案에 反對한다 에디오피아國에 對하야 海의 出口를 與하는 것은 에디오피아로 하여곰 伊太利에 對하야 一層 脅威가 되게하야 伊太利政府에 對한 脅威는 一層 增大될바 今次紛爭의 原因이 되기 威에 基한것임에 鑑하야 伊太利로서는 如斯한 提案은 容認할수업다

一、伊太利政府는 英佛兩國政府가 에디오피아國의 經濟開發에 對하야 伊太利가 特殊의 利權關係를 가지고잇는 事實을 認定한것을 多하다고한다 그러나 英佛側의 見解에 依하면 에디오피아國에잇는 伊太利의 利益의 全部는 伊에兩國間의 特殊協定에따라 處理될것이다 에디오피아國에 對하야 條約履行의 能力이 업다고보는 伊太利政府로서는 到底히 如斯한 提案을 受諾할수업다

一、以上 述한 諸多의 理由에서 伊太利 政府는 에디오피아政府를 相對로 如何한 條約도 締結할수업다 假令 經濟協定이라하더라도 締結不可能이다 따라서 伊太利政府는 如何한 讓步임을 不問하고 모든 國際的協定에 對해서는 이에 參加할수업다

報告書는 이어서 伊太利政府가 五人委員會의 試案을 拒否한 事實을 指摘하고 이어서 에디오피아政府의 提案受諾回答의 內容을 說明하야 如左히 述하얏다

▲에디오피아代表部와의折衝經過

에디오피아代表 데클하와리아트氏는 마다리아가 委員長에 對하야 에디오피아政府의 意思라는 旨를 傳達하고 大要如左히 本國政府의 回答書를 手交하엿다

一、에디오피아 政府는 五人委員會의 提案을 全的으로 受諾하고 이것을 討議의 基礎로하는데 同意함 但 에디오피아 政府는 如何한 和協案도 에디오피아 皇帝의 主權을 侵害치안흘것을 條件으로함

一、또 和協案의 細目에 關해서는 從來의 折衝에 依하야 協定을 決定하기로함

聯盟理事會 勸告案作成

【쥬네브二十五日發電話電通】聯盟理事會는드되어 規約十五條四項의 規定에基한 勸告案作成의 手續에着手하려하는데 아로이지 伊代表는 二十五日라발 佛首相을訪問하고 今後手續問題에 關하야 協議하엿다 또라발佛首相은아로이지 伊代表와의 會見後 이든英代表의 訪問을바더 同樣手續問題에對하야 意見交換을하엿다 이리하야 伊에紛爭에對한 聯盟의 手續이 最後段階에 드러갓다

에디오피아全國 總動員令發布!

【倫敦二十五日午後一時三十分(日本時間午後九時三十分)發聯合至急報】아디스아베바來電에依하면 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 一世陛下께서는 二十五日全國的動員令을發布하엿다한다 動員令은에디오피아國教會大僧正의 副署가잇는데 全國壯丁에對하야即時武器를갖고 軍隊에 參加하라고命令한것이다 但아직確報는업다

伊東阿遠征費 二十五億리라追加

【羅馬二十三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東阿遠征費로 二十五億리라의 追加豫算을 決定하고 二十三日 緊急勅令으로 右豫算案을 發表하엿다 豫算案의 內容은 左와如하다

植民省 十億리라
陸軍省 十億五千萬리라
海軍省 一億五千萬리라
航空省 三億리라

그리고 政府에 別個의 勅令으로서 非常時緊急公共事業費로 一千二百萬리라를 支出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右公共事業費는 地中海上의 情勢에 基하야 沿岸防衛의 支出에 充當할터이다

地中海、情勢切迫에 英續續軍隊派遣

【지브랄타르二十四日發聯合】地中海上의情勢切迫에 따라 英國政府는 續續 軍隊를 急派하야 地中海沿岸의 自治領 植民地警備에 充當하고잇는데 二十四日에도 第二巡洋戰隊所屬 에라제라號(八千三百九十噸)가 將兵을 滿載하고 지브랄타르軍港을 出發하야 地中海某方面에 向하얏다

리스로스氏와 重要協議電命 河北經濟協會에

【北平二十五日發電通】汪精衛、孔祥熙兩氏는 二十四日、河北經濟協會에對하야 레이르롯스氏夫妻가 二十六日飛行機로 北平에 赴하는데對하야 充分歡迎하고 天津、北平의 經濟狀況에對하야 남김업시 意見을交換하라고 電命하엿다 同協會는 前日에 成立되여合同으로 主로 日中間의 經濟提携를 目標할것이라고 諒解되여잇섯스나 協會最初의活動이 英國財政顧問레이드로스氏와의 北中經濟調整問題에關한 重要協議라는것은 日本側으로하여곰 多大한 注目을하게하고잇다

廿六日理事會에서 伊、聯盟失態攻擊?
에國을文明國同樣取扱한다고
英佛等大國交涉에期待

【쥬네브二十四日發聯合】有力한 情報에依하면 二十六日의 理事會에서 伊代表는 確開하건대 알로이지男이 伊太利의 聯盟에對한 不滿을 表明하는 忌避的行動을 取하야 規約十五條四項에 依한 手續에의 移行에 反對를 唱道할터이라고 한다 即에디오피아와 伊太利와의 紛爭을 恰似히 歐洲文明國間의 紛爭同樣으로 取扱함과 如한것은 都大體 잘못이라는見地에서 規約十五條의 完全한 適用을 無理라하고 伊太利가 和協委員會의 審議를 妨害치아니한것은 聯盟이 伊에紛爭의 事情에 通曉하기를 願한 때문이다

그런데 委員會가 聯盟으로하여금 制裁에 옴기도록함과 如한 危險한 行動으로 導하는것은 言語道斷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理事會에는 爲先 에디오피아代表가 發言할 境遇에는 늘 退席할것은 勿論 十五條에 依한 議事進行에 對해서는 이곳저곳에 留保를 附하고 又는 異議를 表明할터로 內心 英佛伊大國交涉의 進展에 期待하고잇서서 專혀 理事會에서는 塗糊作戰을 取할것으로 보인다

伊首相豪語뿐!
進軍못하는理由
酷暑其他로勝算都無

【東京電話電通】伊太利의 鐵腕宰相 뭇솔리니氏는 아직 國際聯盟에 對하야 盛히 强硬意思를 表示하고잇스나 當局에 達한 諸情報를 綜合하면 伊、에戰爭에는 如左히 困難한 事情이잇서 뭇솔리니氏로서도 苦悶하고잇는것이 明白하다

一、伊領 에리트리아唯一의 港口 맛사와는 暑熱이 言語에 絶하야 伊太利 先發部隊到着時와 가튼때는 그늘에서 百三十度에 達하야 晝間은 活動치못하고 夜間에 作業에 從事하고 勞力後는 紳綵體로 道路其他의 露天에 土人과함께 橫臥하야 就寢하고잇는 形便이다

一、伊領 에리트리아 沿岸全長六百七十哩間의 井水는 거의 鹽分이 包含되어 飮料에 不適하고 맛사와와 가튼데는 三百五十哩를 隔한 폴트스단까지 給水官을 派遣하고잇는 狀況이다

一、伊領 소말리란드에는 全長千二百哩의 海岸에 直하야 良港이 업고 唯一의港 모가딧슈에서도 運送船은 海冲에投錨할수밧게업는 狀態이다

一、伊軍軍用品中 材木、食糧品等도 씨실리島의 레몬으로부터는 이미 買齋하고 유고슬라비아로부터 供給을 受하고잇다

一、東部에디오피아와 如한곳은 沙漠이 만흔데 그沙漠中에는 千二百呎이나 急히 低下한곳이잇서 進軍이자못容易치안타

一、마라리아、虎列剌、赤痢、日射病이 猖獗을 極하야 伊軍은 이에 苦悶中이다

一、에디오피아人과가티 肉迫하야手榴彈을 投하는 軍隊에는近代戰術이 效果가 적고 또는 飛行機戰과 如한것도 爆擊目標物이업서 使用의 途는 少範圍에 限定되어잇다

大分縣下農作被害

【大分電話電通】二十三、四日의 暴風雨로 縣下의 水稻는 結實期를 압두고 浸水와 流失의 被害가 不少한데 平年作百十九萬石의 約一割減收라고보아 約三百萬圓의 損害인데 蔬菜、果物等의 被害를 加하면 總額五百萬圓을 不下하리라고 보고잇다

一事一言
殉教者의 피
長白山人

朝鮮의 첫 殉教者는 新羅法興王時代의 異次頓이엇다。그는 人生最高의 信仰을 笑顔으로 가리버리고 信念을 爲하야 斬殺을 當하엿다。그것이 十五世紀나 前이것은 佛教를 爲한 殉教어니와 다음에 天主教에서는 辛未、丁若鍾以下로 萬餘人이 殉教者로 피를 흘리엇다。千五百年間 朝鮮의 佛教가 異次頓의 피우에 섯다하면 今年에 百五十年을 記念하는 예수의 宗教는 辛未、丁亥 萬餘人의 피우에 선것이다。

世上에 物慾을 爲하야 몸을 바리는者가 잇고 功名을 爲하야 몸을 바리기도 도로혀 容易하지마는 眞理를 爲하야 良心을 爲하야 몸을 바리기는 實로 어려운 일이다。眞理와 良心의 信念을 生命以上으로 아는 이 殉教者의 精神이야말로 우리의 비치오 人類의 비치다。

大同江岸에 도마스 牧師의 殉敎記念碑가 잇거니와 異次頓이나 李承薰、丁若鍾等 殉教者를 記念하는 建築이나、記念碑가 잇는것이 업는것은 오직 가튼 信仰을 가진 教徒들만의 일이아니라 實로 朝鮮人全體의 일이다。

朝鮮天主敎傳敎 百五十週年을 記念하기爲하야 로마法王의 特使가 朝鮮에 들어왓다하거니와 이 機會에 殉教者哉衆의 遺事가 잇기를 바라는 同時에 佛敎에서도 그 唯一한 殉教者요 또 新羅佛教의 基礎를 세운 가장 빗난 殉教者 異次頓을爲한 무슨 큰 記念事業이 잇슴이 어떠할까。

眞理와 良心의 信念을 生命보다 더 重히 녀기는 精神! 이것은 바야흐로 오늘날 朝鮮人의 것이라야 할것이다。

에問題와英佛伊
伊의今番動機는 今春의羅馬協定
① 徐椿

에디오피아問題의 歸趨如何는 英佛伊三國의 態度如何에 依하야 決定될것이다。따라서 本問題의 歸趨如何를 卜하는데는 먼저 三國의 態度如何를 詳察할 必要가 잇다。이런 見地에 서서 余는 本問題를 對象으로한 三國의 立場을 論하야 써 에디오피아問題의 趨勢를 卜하는 材料를 삼고저한다。

(一) 伊太利의 立場

伊太利가 에디오피아의 富源을 엿보기 始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오、발서 幾十年前부터이엿다。그러나 今日까지 그宿望을 達치 못하고온것은 英佛兩國의 妨害때문이엿다。그러나 昨年末부터 今年初에 드러서면서 한가지 새事實이 생겻스니 그것은 佛蘭西라는 나라가 獨逸에 對한 自衛의 一策으로 伊太利와 親近하려는 政策을 쓰기 始作한것이다。佛蘭西는 今年一月七日佛伊羅馬協定에 잇서서、伊太利에 對하야 (一)佛領사하라의 리베스티以北의地方 (二)佛領소마리란드의一部 兩者合하야 約八萬平方哩의 領土와 (三)아비시니아鐵道(佛領소마리란드의 지부티港으로부터 에디오피아首都 아디스아베바에 至하는鐵道)의 共同經營權을 讓渡하는 同時에 將來 에디오피아에 對하야 伊太利가 어떤程度의 自由行動을取해도 關係치 안는다는 密約을주엇다。

여기서 氣勢를 어든 무쏘리니는 某種의 口實을 捕捉하야 에디오피아를 아조 삼켜버리고 말 생각을 품께 되엿는데、때마치 羅馬協定보다 約一個月前에 이러난 왈왈 事件이라는것이 잇섯다。따라서 伊太利는 왈왈事件을 口實로 하야 東阿에 大軍出兵을 開始하야 紛爭의 端緒를 이르키엇다

그러므로 왈왈事件은 伊太利의 東阿出兵의 한 口實에 不過한것이오、伊太利가 今番 擧에 이르킨 根本動機는 今年 一月의 佛伊間의 羅馬協定에 잇섯다고 보는것이 正當하다。

그러면 伊太利는 何特、에디오피아를 征伐 倂呑할 必要가 잇느냐하면、伊太利는 獨逸보다도 뒤떠러진 後進國이다。제가 비로소 現代的 國家體를 이루고나서 四圍를 살펴볼때는 世界는 벌서 寸土의 餘地가 업시 西班牙、葡萄牙、和蘭、英國、佛蘭西等의 列强으로 分割되고 마른때이엿다。따라서 伊太利統一後、爾來五十五年間에 애써서 주어모흔植民地란것이 겨우 現在世界地圖에 실니워잇는 리비아(亞弗利加北部)、伊領에리트리아、伊領소마리란드(兩者共히 亞弗利加東部)等뿐인데、此等諸地는 共히 砂漠地帶又는 그러치 안더라도 磽确의地로서 經濟上의 利用價値가 極히 적은 땅들이다。그러기때문에 人口가 過剩하고、富源이 貧乏한 伊太利는 相當한 富源을 가진 領土가 아직도 世界에는 相當히 만타。그러나 그것들은 다 발서 힘센主人들이 차지하고잇는 것이라、伊太利에對해서는 다만 畵中의 餠이다。오직 만만해 보이는 한獨立國이 잇스니 그것이 問題의 에디오피아요、그것은 伊太利의 立場으로보아서는 千萬多幸으로 가치伊太利領인 에리트리아와 伊領소마리란드와의 사이에 끼어 잇스면서 이와 國境을 相接해잇다。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볼지라도 伊太利가 植民地獲得을 目標로하야 나갈것은 오직 이 에디오피아의 征伐倂合의 한길밧게 업다는 一點은 이것을 理解하기에 困難치 아니할것이다。다음 亞弗利加地圖를 펴노코보면 얼는 알수잇슬바와 가치 伊太利가 萬若 에디오피아를 獲得하야 自己의領土로 만드는 날이면

(一) 에리트리아、에디오피아、伊領소마리란드의 三地를 連續시키는 結果로 에리트리아、伊領소마리란드의 二地의 效用價値를 增大시킬뿐만아니라。

(二) 更히 一步를 進하야는 이 三地와 리비아(亞洲北部)를 連續시킬 可能性도 大히 增大한다。何故오하면 三地와 리비아와의 사이에는 다만 英領수단의地가 介在할뿐인故로 後日、이것을 英國의 손으로부터 떼여 내기만하면 될것이기때문이다。

如斯히 富源의 利益에 遠大한 計畫까지를 加하야 생각하면 伊太利의 立場으로서는 에디오피아를 倂合해 바릴수밧게 업는 必要가 잇슴을 理解할수가 잇슬것이다

內蒙古에 獨立運動擡頭

【北平二十五日發聯合】蒙古地方自治政務委員會가 去八日 西公旗와 石王을 免職한 結果 綏遠省政府와 內蒙古委員會와는 果然 反目狀態에 陷하야 지금 內蒙古의 自治宣言으로 獨立運動이 惹起될 形勢가 되엇다

機關說撲滅에 陸海軍意見一致

【東京電話電通】美濃部博士의 學說問題에 端을發하야 軍部의 態度가 俄然 硬化하야 陸海軍이 協力한後 機關說撲滅에 對한 政府의 蹶起를 促하기로되어 吉田海軍軍務局長은 二十三日以來 數回에 亘하야 今井陸軍軍務局長과 會見하고 機關說을 徹底的으로 撲滅하고 國體明徵을 期하기爲하야 軍으로서 政府에 要求할 具體案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完全한 意見의 一致를보게되엇다 따라서 大角、川島軍部兩相은 二十五日午後 閣議에서、共同戰線을 펴고 所信을披瀝하기로되엇다

伊太利에 軍靴輸出停止 英勞働組合決議

【倫敦二十四日發聯合】英國製靴勞働組合中央執行委員會는 勞働組合年次大會의 決議에 基하야 伊太利에對한 軍靴輸出을 停止하기로 決定하엿다

夕刊後市況 廿五日

◆大阪 短期 氣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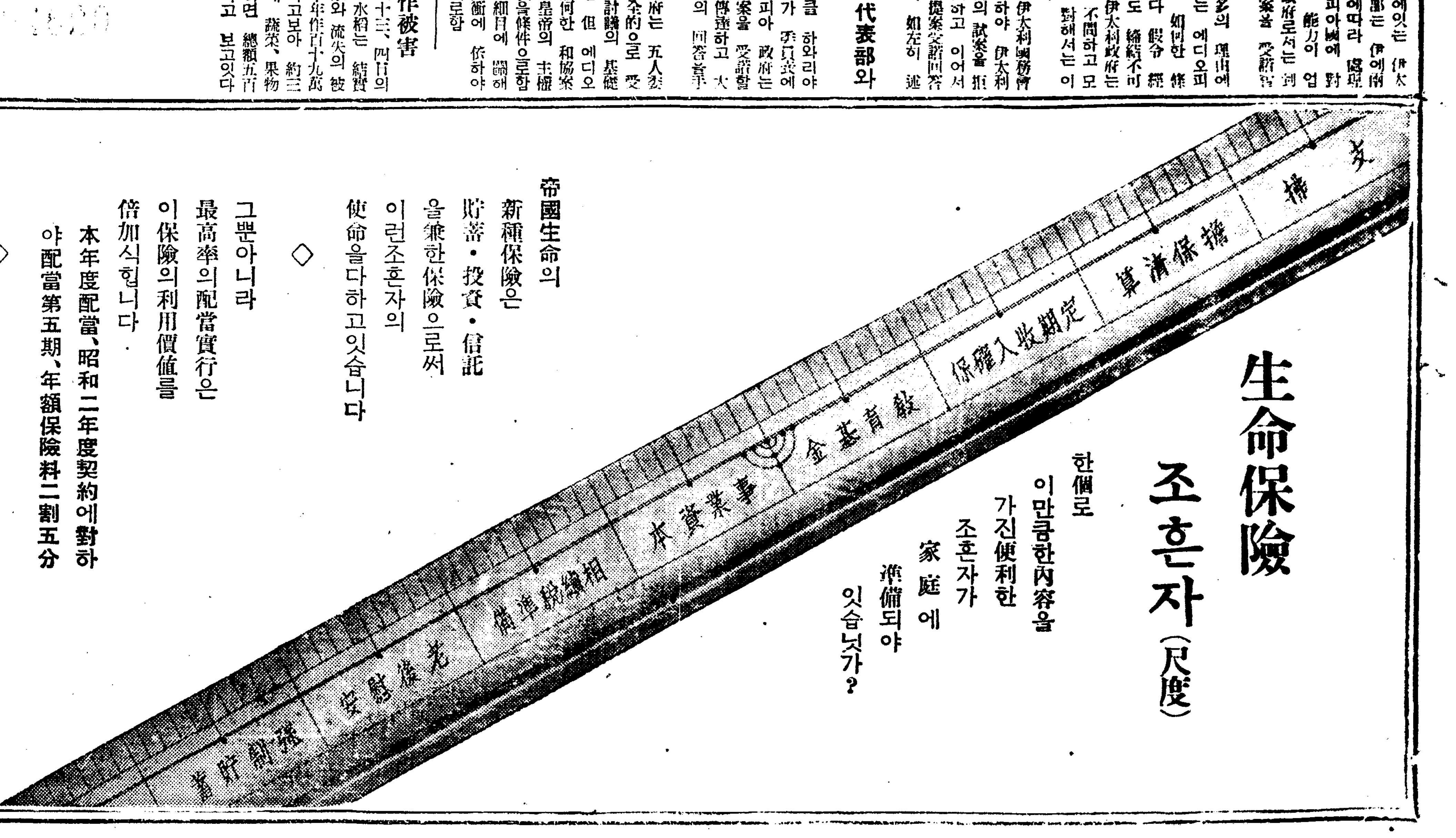
大新	九七一〇	(二〇高)
鐘新	一二七二〇	(一〇高)
日產	八三四〇	(二〇高)
東新	一五七八〇	(一〇低)

◆橫濱 生系 後引◆ 當限 八九五〇〇 先限 八八二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四三〇 先限 六六六〇

生命保險
조흔자(尺度)

한個로
이만큼한內容을
가진便利한
조흔자가
家庭에
準備되야
잇슴닛가?



帝國生命의
新種保險은
貯蓄・投資・信託
을兼한保險으로써
이런조흔자의
使命을다하고잇습니다

◇

그뿐아니라
最高率의配當實行은
이保險의利用價値를
倍加식힙니다

本年度配當、昭和二年度契約에對하야配當第五期、年額保險料二割五分

◇

이리하야七月末
契約高 十億圓
을突破하야、各位의期待에
奉副하게된것을깁히感謝드립니다。

東京・丸の內
帝國生命
(營業案內・健康增進叢書贈呈)

"滿洲化敎育"問題로 滿國과總督府對立
國籍問題解決과서로關聯
今後外務當局과解決

총독부에서는 재만조선인문제에 대한 취적방책상 또는 재만조선인의 장래발전상 재만백여만조선인을 일본적으로 만주국에 귀화식히려고 금번본부에 근본방책을 결정하엿든바 최근에 와서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 이중국적문제등에 대하야 만주국당국과 총독부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대립하야 당분간 근본적문제에 관하여는 쌍방의 원만한 해결을 보기는 극히 곤난한 상태에 빠지어 조선인의 대이민계획을 압두고 사태는 중대시되고잇다 이와가튼 중대한 정책의 대립을 보게되것은 만주국에대한 일본의근본적 국책에중대한 모순이잇기때문에 쌍방의주장에 대립을보는것인데 만주국에서는 치외법권의철폐와 동시에조선인의 교육권에 한하여는 만주국에서 만주국의 교육방침에의하야 실시한다하야 재만 일본내지인과는 차별하려함으로 만일 총독부에서 조선인측진부 귀화식힌다면 총독부로서는 가장 중대시하고 잇는 교육문제에잇서 조선인 교육은 완전히 만주화할것은 확실함으로 이문제의 해결을 볼때까지는 총독부에서는 국적문제의 해결을 당분간중시하는동시에 조선인교육문제의 해결도 결국치외법권의 철폐와동시에 장차구체적으로 해결하게된 일본(조선인도포함한다)의 교육권문제의 해결과가티 해결할방침으로 금후외무성과 주만대사관과 관동군과협의를 할터이라한다 현재재만조선인 교육문제에 대하야는 재만조선인민회 만주국내의 조선인 관리 재만 조선인 교육자등 각기 의견이 달라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잇다는데 좌우간 총독부의 현재의 의견으로서는 재만조선인 국적문제에 잇서서는 역시귀화 식힌다하여도 이중국적의 형식을취하며 교육문제에 잇서서는 만주식교육을 단연실시하지안코 반드시 총독부 방침에의한 교육을게속할 의향인것은 틀림업다한다

敎壇서赤化宣傳 如出一口로否認
警察의○○으로虛僞自白햇다고
第四回全北敎員事件公判

【全州支局特電】전북적색교원사건(全北赤色敎員事件)제사회 공판은 이십오일 오전구시삼십분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야(上野)재판장주심으로 개정하얏는데 이날사실을 심리하게된 피고들은 주로 교원들이엿슴으로 방청석에는 각학교교장과 학생들의특별방청이만허 다른날에 보지못하든 늣김을 주게되엿다

사실심리에 드러가 류인걸(柳寅傑)은 예심종결서 전부의사실을부인하는동시 이가튼사실을자백한것은 경찰의××에 이기지못하야 할수업시 말한것이라고 진술하고 다음 리길현(李吉鉉)과 박봉태(朴鳳泰)은 교수시간에 학교아동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한사실은 전혀업다고 신문사실을 부인하고 상원막(桑原莫)의 심리에 드러가 재판장으로부터 피고가 적색교원이 되기까지의 경과와 군대적화(軍隊赤化)의 계획에 대하야 무른즉 피고는 일속히 전부 운봉(雲峰)에서 양종순(梁種順)외수명의 피고들과만나 사회과학연구에 대해서 협의한것과 공산주의의 일반화에대하야 운동을전개하며 피고가 룡산(龍山)병대에 입영(入營)하게된으로 군대를 적화시킬것과 만주사변을 계긔로반제국주의전쟁 운동을 이르킬책임을진 사실은전연히업고 그도역경찰의××에 못이겨 자백한것이라고 전부를 부인하고 다음박호석(朴鎬錫)외 일명의 심리를 마친후 오후 령시십분 휴정하엿다

오후한시십분 다시 속행하여 조광호(趙光浩)외 수명을 중심으로 전북 임실(任實)에 사, 오개소의 농촌야학(農村夜學)을 만들어 농민에게 공산주의 의식을주입시킨것다는 사실의심리에 드러갓스나 그역시 전부를 부인하고 말엇슴으로 동오후두시오십분 폐정하엿다 다음제오회 공판은 오는십월 사일에 개정하기로 하엿다

自動車襲擊 四名을拉致

【新京支局特電】만주국내의체신긔차공사(遞信汽車公司)에서는정과 대형승합 자동차에 승객네명을 실고 이십사일오전 팔시에관전현관전성(寬甸縣寬甸城)을 떠나 장전하(長甸河)로 향하야진행도중에 오전 팔시반경 관전조향령 중복에 이르럿슬때에 로상에장해물이 잇는것을 발견하고 운전수가 이것을치우려고 정차하엿는바 부근산림중으로 부터 무장단이십여명이 나타나서 자동차를 포위하고위협발포를하면서 접근하야 승객네명과 운전수조수합륙명을 인치로 랍거하고 자동차는 산림자이에 전복식힌후에 도주하엿다

奔牛傷人

이십삼일 오후두시반경에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자곡리(廣州郡大旺面慈谷里)이백구십삼번지 사는박원용(朴元用)(三□)이란농부가 동대문밖 가축시장에서 황소(牡牛)한머리를 사가지고 시외상왕십리(上往十里)칠백십일번지압 영미교(永尾橋)를 건너가던중 마츰그때에 반대방향에서 어떤농부가 암소한머리를 몰고 오고 잇섯는데 돌연 전긔 박원용의 황소가교미를하라는바람에 황소뒤에서다리를 건느고잇던 시외하왕십리(下往十里)륙백사십삼번지 양선용(梁□容)(七□)이란 로인이 황소에 채여서 다리밋헤 떠러저서 머리와쇄골에 중상을 입고 시내 창신동(昌信洞)삼중병원(三重病院)에 입원하야 응급치료를 밧는중인데 전치삼주일간의중상이라한다

鐵路轢死四名
湖南線外三線에서만
二十三、四日兩日中에

철도사고상건一이십삼일 오후여덜시십분경에 남원행(南原行)제구백칠십륙호렬차가 군산선(群山線)개정 지경(開井地境)간 리리(裡里)기점 삼백칠십오키로부근을 진행하든중 횡단하는 조선인 남자한명이 잇슴을 발견하고 긔적을 울리며 급정차를 식혓스나 미처밋지못하야 오른편억개와 두발에 상을입고 즉사하얏는데 신원이 불명하며 렬차는 이까닭에 팔분간정차하얏고 동일동시오십분에 천내리선(川內里線)제칠백이십칠호렬차가 천내리교량위에 다다랏슬때에 조선인 남자두명이 철교를 건너가다가 한명은 치여죽엇고 한명은 뛰여내려 즉사하얏는데 그들은 문천군 도초면(文川郡都草面)리병국(李炳國)과 김승배(金升培)(三□)로 판명되얏스며 이십사일 오후한시오십분경에는 복계행(福溪行)제오백사십륙호렬차가 함경선(咸鏡線)문천(文川)간 원산(元山)기점삽사『키로』오분부근을 진행하든중 조선인 남자한명이 또 선로를 횡단하다가 긔관차에 치여 즉사하얏는데 안변군안동리(安邊郡安東里) 김룡운(金龍雲)으로 판명되얏다한다

"남방"의朗音도 이달로서마즈막
機械에게追放될二百餘交換手
交換孃餞別探訪 一

오는시월일일부터 경성본국(本局)관내에잇는 전화교환은 일게히 자동식(自動式)교환으로변경되야 날마다 날마다 하루이십사시간 끄임업시『남방남방』하든 교환양들의 명랑한 목소리는 대신에쓰쓰(특지)하는 긔게가 등장하기로되엿다 문명을 비판할때에 묘혈(墓穴)을 파는무리들이라고 한말은 새삼스러운 말이아니겟지마는 기계에게쫏겨가는 인간의무리! 이는현대문명이가저다주는 한가지특색이다 기게에게 쫏겨가는 그들을전송키위하야 기자는 그들의직장을찻기로하엿다

×

한울은 한업시높고 일긔는 맑게개이여 춥도 녀울도 안흔 가을날 포도(鋪道)우에는『프라타너스』의 닙파리가 한닙두닙 떠러지고 담(墻)에 엉킨남쟁이닙은 누러케 단풍들기 시작하야 도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산란케하는 애상(哀想)의가에는 열칠팔세로 부터 이십오륙세 가량된 어엽분 교환양들이 수화긔를 귀에 걸고 밝갓케 힘게 꺼젓다 켜젓다 하는 『람프』빗에 따라 선(線)을 이엇다 끄넛다 하기에 분주하다 그들은 언제 이교환이 긔게로 자동교환으로 변경되든 오늘관련(吾不關焉)이라는 듯이 오로지 긔계적으로 정신을 총집중하고 불이 켜젓다 꺼젓다 하는것만들려다보고잇다

×

사월에 조사한 통계수자에 따르면 본국만의 호출(呼出)수가 하루동안 십사만회에달하며 가장번잡한 시간의 호출수는 일만사천회나되야 교환수한사람 평균 한시간에 이백오십회 내지삼백회나된다고하니 일분동안에 네번내지 다섯번식그들은 선을끄넛다 대엿다하여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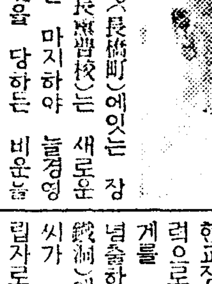
×

본국관내전화 오천여개를 교환하기위하야 본국에만 교환양이 이백여명이잇는데 그들의삼할은 조선녀자이고 남어지는모다일본내지인이다 그들은하루에 여덜시간 근무로 한시간만큼식 분식 휴게를한다 한참밥분때는 미처불이켜저도 공응답치 못함으로 수모르는 가입자는 늣게나온다고 추상가튼 꾸지람을내려서 어떤사람은 조곰만다되거나 나틀리거나하면 대번에『날이따뜻하니까 졸고잇느냐』는등『어젯밤에 잠사지안코 무엇하엿느냐』는둥참아 들을수업는 욕설롱담을 함부로 퍼부어 다만들일뿐이오 보이지안는 전화선을 통하야 그러케 안어도 감수성(感受性)과 자존심(自尊心)이만흔수처녀들의 가슴을 아푸게한다고한다 그러나 그들은 직업이다 그들은 자긔들의 직업의 중대함과 신성함에자존심을가지고 그개는 의살구진 친구들의 허튼소리는 치지도외하고 만다고한다

×

직업치고 중요하고 신성치안흔 직업이 어데잇스리요만은 전화교환수야말로 중대하고 신성한 직업어될것이다 꼿피는봄 닭밝은밤 애달분가삼을 룰켜쥐고 사랑하는애인에게 보내는 정화를 이어주는이도 그들이요 방금불이낫스니꺼주고 강도가 들엇스니 잡어가오 물건시세가 올랏소 내렷소 옥동가튼아들을나헛소……인가사리에 긴급한일、구조일할것업시 그들은 친절하게 충실하게 말을 중개해주는 어엽분 앵무들이다

長薰普校에曙光
十萬圓財團을目標로하야
朴基鴻氏가經營擔當



시내 장교정(長橋町)에잇는 장훈보통학교(長薰普校)는 새로운 설립자유지를 마지하야 늘경영난으로 곤난을 당하든 비운을 일소하고 견실한 기초우에 서게되엇다 즉 동교는 지금으로부터 삼십여년전에 설립이되어 그동안까지는 열다섯명으로된 설립자회에서 경영에 당하엿섯스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든중 현교장인 김상섭(金相燮)씨의 노력으로 합성회사(合成會社)라는 게를 조직하야 근근 유지비를 념출하여섯는데 시내 관철동(貫鐵洞)에잇는 박기홍(朴基鴻)씨가 얼마전 동교의 새로운설립자로써 경영일체를 담당하게 되엇는데 압호로는 십만원의 기본재단을 확립하게되리라 한다 그런데 전기박기홍씨는 립지전중의인물로써 소시적부터 근근자자하야 오늘날의 거대한 재산을 이룬것인데 그와가티 모은재산을 앗김도업시 육영사업에 던지게 된데대하야 일반은 칭송이 자자하고 특히 이십오일 오후두시부터 동교에서는 각게유지를 초청하야 박기홍씨의 환영회를 성대히 거행하엿다 (사진은 박기홍씨)

都計硏究會서 各般施設調査
二十六日總會開催

경성부의 대경성건설계획에 반려(伴侶)기관으로서 그기운동촉진하고 또 도시계획에 필요한 기위하야 이십오일 오후한시부터 경성부청회의실에서 회장이 달(伊達)부윤의사회로 총회를열고 시가지계획령적용 국유림불하 잡음매연(煤煙)방지 방수공사의철저 남대문동전차의도로 중앙이전문제등에대하야 토의하엿다 이회에서는 일속부터 조사부를두고 거기에 다시 열두 여서 조사연구할복적으로 조직된 경성도시계획연구회(京城都市計劃硏究會)는 그동안 여러번 소위원회를 열고 조사재료의연구를 거듭한결과를 종합도의하야 뷰(부)를 두어서 구역 교통 위생 보안 경제 교육 공원 사회시설 제도 건축 주택 재원등열가지 부문에걸처 기초조사를행하야 대경성건설의준비가될 기초로의사항중에서 직접관계당국에 향하야 촉진할것은촉진하고 참고재료를 제시할것은 제시하야 이익고 시가지계획적용후의 도시건설사업에도 협의기관으로서 참여하리라 한다 그러고 도시문제는 비단경성만에 한한문제가아니므로 아즈로는 이회에서는 전조선중요도시를망라하야 조선도시문제회의를개최하리라한다 (사진은 교환수 현직장)

商工業者 丹楓노리
重陽、蓮菊佳節에 新羅古刹望月寺로
市中의人氣總集中
單一圓二十錢으로一日間淸遊

에 몸과 마음을함께 시달린 여운생활의 투사들을 위하야맑은가을의 자미로운 하루를 갓게하고저 작년부터 본사가 시작한 경성상공업자단풍노리 개회는 금년으로써 제이회를맞게되얏다 원체가 하루의틈이나한가한 혼잡한 시의 안식도업시 고삽(苦澁)한 점두목생활로 복가치든 이들을위한것은공상 인만큼 제일회때에도 초만원의 에서던 대성황을 이루엇든터이라 금번 운여를 제이회의 인사긔도 미리부터짐작할수잇다 더욱이 이번에는 오지이는 십월초육일 제일 일요일로 황국단풍(黃菊丹楓)의 자래 망괴속 로유일만명철인 음력 구월구일의 중양가절(重陽佳節)을 긔하야 신라(新羅)이래 일천여년의 려사와 근교명소의 이름놉흔 수석(水石)을함께 자랑하는 경원선 망월사(京元線望月寺)로 가기로 하얏슴으로 인긔는더욱 집중될것이 틀림업다 이날행정은 아츰여덜시까지 청량리(淸凉里)정거장압에 집합하야 본사원의 주의사항을듯고 명승안내서(名勝案內書)와 긔념품등의 배포를바든다음 긔차로 망월사로향하야 본사에서 배부하는점심을바다 산간의 청초한 가을의피크닉을 마치고다음 청류(淸流)를흐키여마시고 자유탐승에드러가 마음것탐승하고 여흥의자미로운것을 구경하고 그날로도라오기로하는것으로 회비와기타주의사항은 아래와갓다

▲申請期日 十月二日까지
▲申請場所 本社庶務部 又는廣告部에 電話하시면 社員이 進拜接受하며 그外에는 和信案內係、天一藥房黃金町支店、和信西大門連鎖店、以文堂(安國洞四三丁目四街)、東亞婦人商會(鍾路二丁目)、東仁商店(東大門通) 但, 小兒同伴 及 當日驛前에서 申請함은 謝絶함
▲會費 每人一圓二十錢(往復車賃、午飯、飲料(正宗二合)記念品、賞品等包含)

南大門市場 商人聯合會

運動競技欄

俊銳延專의猛擊 4-0 强豪崇專慘敗
遠征連戰의疲勞色顯著

東京에遠征하야 四戰三勝一敗의好戰績을남기고 凱旋途中 二十四日에入京한 平壤崇實專門對延禧專門의 對抗蹴球戰은 二十五日午後四時四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徐丙義(主)、趙映河、梁□昌(線)三氏審判下에開戰한바 이날盤天에 東北風이相當하야 『컨디숀』은 不好한便이엿다

【前半】崇專킥어프로開始하니 西便陣을차지케된崇專軍 東北의風勢를 利用하려하엿스나 初부터 苦戰의빗이 업지안엇스나 延專의執拗한攻擊을 防禦할勢力이 二十分까지 兩軍得點치못하드니 崇專軍門前에서 混戰하다가 二十一分에 延專CF金成玕君의妙蹴으로 最初의꼴을너허크게氣勢를올리다 이에崇專軍攻勢에나아가 數次의好機를마젓스나 凡蹴無效 三十分에 延專FW의連絡巧妙히進擊하야 R-I 韓惠德君의꼴

(寫眞은延專、崇專兩蹴球部)

로 보기조케드러가 二對0으로 延專一層優勢를보이고 崇專軍은 □□하면서 前半을마치다

【後半】崇專軍은 全力을다하엿스나 延專軍의 猛勢를 挽回코저하야 攻擊의效果는 두렷치안은가운데 延專軍의 猛烈한攻勢를繼續하다가 十五分에 崇專軍의 門前에서 나라킥을 이용하야 二十五分에 CF金永根君의 妙蹴으로 延專CF金成玕君의 꼴이 되엿스나 『꼴스』한것이 『꼴빠』를맛고 나오는것을 RW金宗漢君이 다시 추하야 延專軍三番째꼴을넣어 大勢는 이미決定되엿슴을주엇다 三十五分

(延專) (崇專)
GK 朴相駿 金昌植、LF 李朱燮、RH 金容善、CH 丁海應、LH 李興植、RW 金宗漢、RI 韓惠德、CF 金成玕、LI 李泰燮、LW 朴□和
GK 沈□、RF 金永根、LF 李泰燮、RH 朴鍾根、CH 金□煥、LH 朴鳳□、RW 李□、RI 金□、CF 金永□、LI 廬□□、LW 朴相鎬

	計	前	後
點數	4	2	2
門蹴	14	7	7
角蹴	4	2	2
自由蹴	6	5	1
	0	0	0

	計	前	後
點數	0	0	0
門蹴	19	10	9
角蹴	3	2	1
自由蹴	6	4	2
	1	0	1

에 崇專CF金成玕君의수으로 또一點을더 하여다(게임九十分間) F金成玕君의수으로 延專軍快勝

延長또延長의白熱戰
信聖、培材를이겨
一高、善隣、徽文、各勝
全朝鮮學生籠球第一日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一回全朝鮮學生籠球選手權大會第一日은 二十五日午後二時부터鍾路靑年會後庭코ー트에서열린바 이날中等校部에서 京實이全州新興을이겻고 宣川信聖對培材戰은熱火의接戰끗데 延長二回를거듭하드니 信聖軍辛苦히 自由投한個의差로 第一戰에 得勝하엿스며 不戰一勝者戰에드러가 協實은一高를 徽文은 二高를 悠悠히이겻고 善隣對徽新戰은 아기자기한 接戰을 演하며 延長戰에서 徽新軍한 꼴差로 앗가웁게 敗하엿다 이번 大會부터는 從來와는달리 延長戰에 드러가어느便이든지 먼저 得點한便이勝利로되는 改正規則에 依하기로되엿다한다

中學部第一回戰

信聖 40 (13 16 11 / 12 19 8) 39 培材

【中等校部第一回戰】宣川信聖學校對 培材高普戰은 當日午後二時五十分부터 뻔하ー트、李惠澤兩氏審判아래 開始되바 兩軍一進一退 伯仲之勢를보이며 延長戰을 二次나거듭하드니 드디여 四○對三九로 遠來의 信聖軍第一戰에勝捷하엿다(게임四十分間)

反	後	延	前	【培材】		【信聖】	前	延	後	反
	3	4	0	0 成宇慶	F	韓啓柱	4	8	10	1
						朴英一	-	2	6	0 4
						朴聖龍	-	0	0	1
	4	4	4	2 金潤昊		金德彬	0	0	0	0
	1	0	2	0 河廷容	C	金混瀷	2	0	2	0
	4	2	1	0 朴殷鎔		白英俊	0	0	0	0
	0	0	4	2 徐永鴻	G	張根益	3	2	1	2
	2	1	8	8 梁聖春		李昌秀	0	0	0	0
	14	8	19	12			11	16	13	8

第二回戰

一高 23 (12 11 / 6 10) 16 協實

【中等校部第二回戰】第一高普對協成實業戰은 同午後四時부터金振秀、李惠澤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猛烈한接戰끄테 二十三對十六으로一高勝(게임三十分間)

反	後	前	【一高】		【協成】	前	後	反
7	1	0	姜誠恒	F	柳國鉉	0	0	2
2	0	0	金鶴九		韓澤鎬	2	0	2
0	4	0	裵錫烈					
0	6	1	金龍壽	C	金鎭相	0	6	2
0	1	1	朴勳植	G	林用淳	0	2	0
2	0	1	孫光廷		関純鉉	3	2	0
11	12	3				5	10	6

善隣 32 (21 11 / 13 17) 30 徽新

【中等部二回戰】徽新學校對善隣商業戰은二十五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安台慶、丁相九兩氏審判으로 開始되여 白熱戰이 展開되여 前半에 善隣저으이 不利하엿스나 後半 猛襲에 奏効하야 同點되여 延長戰에 드러가 結局三十二對三十으로 善隣軍이勝捷(게임三十一分間)

反	前	後	延	【善隣】		【徽新】	延	後	前	反
0	0	4	0	金元斗 東奎	F	鄭東湊	0	0	0	0
3	2	4	0	權赫衡		朴利鉉	0	0	0	4
1	3	7	0	李尙衡		崔志善	1	0	0	2
1	3	1	2	朴元根	C	蔡允鉉	11	9	0	1
0	1	1	0	孫秉錫	G	李壽洪	5	0	0	1
						梁在憲	0	0	0	0
4	2	2	0	金東謨		秋尙輝	0	4	0	0
9	11	19	2				17	13	0	8

徽文 51 (34 17 / 5 8) 13 二高

徽文高普對第二高普戰은 二十五日 午後五時四十分부터 張緯、李惠澤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劈頭부터 徽文軍總攻擊에 前半戰

反	前	後	【徽文】		【二高】	前	後	反
0	4	7	姜日東	F	金善益	2	0	0
1	0	6	李明天					
0	5	11	尹柱燮		鄭容淳	4	0	1
0	2	2	黃奎鳳	C	李康鄂	2	0	2
0	2	4	金容武	G	崔殷相	0	1	2
1	4	4	申鴻浩		成秉勝	0	4	3
2	17	34				8	5	8

十七對八로 徽文軍斷然리ー드하고 後半에 三十四對五로 結局五十一對十三으로 二高慘敗(게임三十分間)

反	前	後	【京實】		【新興】	前	後	反
0	2	4	全宇顯	F	洪淳直	2	2	0
0	12	13	金東鎭		鄭祥勳	8	2	0
					鄭鶴松	0	0	1
0	12	0	裵哲讀	C	宋建燮	0	2	1
					梁奎錦	0	2	0
0	4	0	徐逸濟	G	趙聖憲	8	9	1
					金完斗	0	0	0
3	0	2	朴聖基					
3	30	25				18	17	5

A마라손會 來二十八日開催

서울陸上聯盟主催의 第八回A마라손會는 月例에依하야 來二十八日(土)午後三時부터 光化門通四街里廣場을 떠나 漢江橋北端往復(約八哩)코ー스에서 擧行할터인데 參加金은 十錢이라한다

立敎 5A 早大 4

【東京電話電通】東京六大學野球리ー그早立一回戰은 二十五日午後二時十分부터 神宮球場에서早大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五A對四로 立敎勝、閉戰四時三十五分
◇投捕 早(近藤-鶴岡) 立(菅原、廣瀨-成山)

城大럭비敗戰

【福岡電話電通】第四回 城大對九大럭비戰은 二十四日 午後三時부터 九大工學部運動場에서 城大先蹴으로 開始한바 雨中 最惡의『컨되숀』에 兩軍 猛烈한『드리블』戰을 展開하야 結局十六對零으로 九大連勝

九大16 (8-0 / 8-0) 0城大

今日의運動

▲籠球‖中央基靑主催 第十一回全朝鮮中等校籠球選手權大會第二日 中央對靑學(午後二時)松高對道商(午後二時五十分)普成對中東(午後三時四十分)崇中對養正(午後四時三十分)京實對信聖(午後五時二十分)中央基靑後庭코ー트에서

▲럭비蹴球‖西部럭비協會朝鮮支部秋期리ー그戰第二日 午後三時半 京商對善隣 午後四時半 鐵道對龍中 午後五時半 醫專對道西

▲普通學校運動會‖孝昌普校 梅洞普校各運動會 午前九時 同校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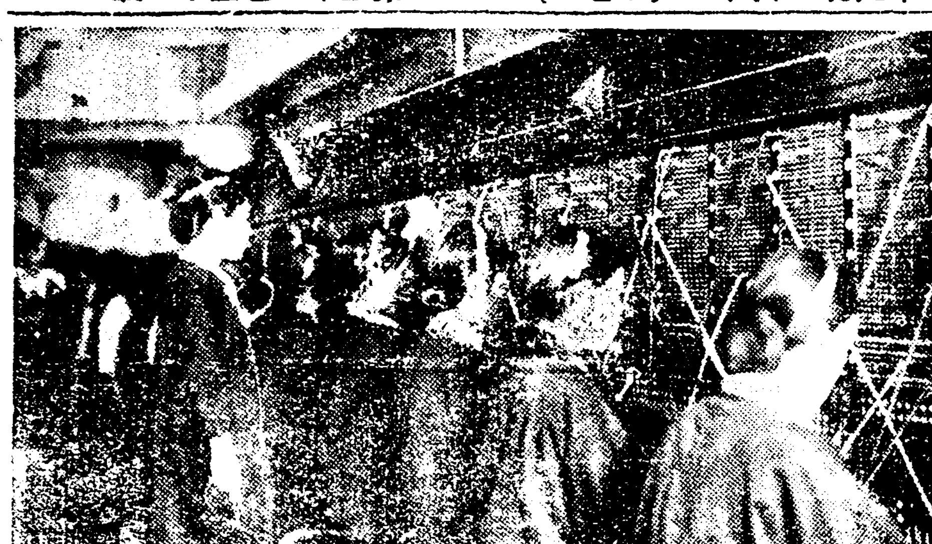
運動界集會·人事

▲朝鮮體育會理事會는 今廿六日 午後五時부터 鍾路一丁目同會事務室內에서

▲宣川信聖學校 籠球部一行九名은監督 朴元奎氏 引率下에廿四日入京貫鐵洞永信旅館에投宿

▲崇實專門校 籠球部一行金善明監督以下八名은 二十三日午後入京 太平通一丁目 奉三旅館에投宿中

▲崇實中學 籠球部一行東在監督以下八名 同上



商業實務講義

大特典
第二개月째에進呈할單行本 **商業算術と珠算** 名古屋商業學校敎諭 木村鉎 名古屋商業學校敎諭 小關實三郞共著
第四개月째에進呈할單行本 **店舖設計と店內設備** 日本能率聯合理事 淸水正巳 商店界立案部 川喜田煉七郞共著
第六개月째에進呈할單行本 **經營者必携** 白木屋專務 山田忍三 松坂屋專務 小林八百吉 松屋專務 古屋惚吉共著

◆內容說明書進呈

葉書로申込하면 說明書無代進呈
全六卷 (每月一冊式、本의外에 別冊三冊無代進呈 實物은大地七寸五分 크로ー스上製美本 菊判、各冊約三百頁)
前金 一時拂 金七圓二十錢
每月拂 第一月 金一圓五十錢 / 第二月以後 金一圓二十錢
(要無料送)

東京市神田區錦町一ノ五
日本商業學會 會員受付係
振替口座東京六四九七三

科目	講師
商業要項	神戶商業第一校敎諭 刀禰館康三先生
商品學	東京帝國大學講師 坂口武助先生
商業簿記	名古屋高商學校敎諭 富田逸太久郞先生
國際經濟地理	明治大學敎授 中澤澄男先生
國際經濟地理	第一神戶商業學校敎諭 小山準太郞先生
外國文	神戶商業學校敎諭 假谷完先生
商業英作文	名古屋商業學校敎諭 加藤安羅先生
英和	神戶商業大學講師 小川忠藏先生
英文譯	早稻田大學敎授 高杉瀧藏先生
和文英譯	明治大學敎授 岡田朝太郞先生
英會話	法學博士 小林行昌先生
法制	早稻田大學敎授 粟飯原重三先生
經濟	商學士 黑田原白穗先生
銀行簿記	東京府立第一商業學校敎諭 淸水正巳先生
習字	商業學校敎諭 相原壽先生
販賣實論	商店界主幹 室田庫造先生
廣告圖案	商店界 友田健二郞先生
廣告裝飾	商店經營家 室田庫造先生
商店實務	商店界主幹 倉本長治先生
商業英語	三越實業部長 佐々木良雄先生
商業心理	立敎大學敎授 小此木爲二先生
販賣經濟	東京商科大學敎授 上野陽一先生
實際知識	能率硏究所々長 周東保造先生
商品業態	東洋經濟新報社 友田健二郞先生
百貨店	ビズネス・カウンスラー 北田內藏司先生
小賣商	ドクトル・オブ・フィロソフィ 伊藤重治郞先生
數字的商店販賣術	商店主 西川清二郞先生
外交販賣術	實業家 相原壽先生
通信販賣術	商店界主幹 友田健二郞先生
月賦販賣術	商業評論家 室田庫造先生
商業美術	講師

優秀한講座課目과講師

地장담할수가잇다。이講義로 工夫한것이 大端有益하야 昇給도빨이되얏다는 感謝狀도와서잇다。現代의 大會社課長級에는 大學生보다 自力獨學의분이 만타

이잇스면즉 누구에게든 商業學校卒業의 學力

有用한 사람이될수잇슬뿐안이라 工夫하면, 엇던商店會社라도곳 敎育을 밧지못한분도、本講義로 錄』으로 工夫하여주십시요。中等 纂한 日本第一의『商業實務講義 月刊雜誌『商店界』가 苦心하야編 商店繁昌을바라는 日本唯一한

商店界의講義錄

이런 훌융하고 堂堂한 講義錄은 日本에 但只이 것하나뿐!

慶北道內十七個郡 民間賦役七百萬名
洛東江砂防工事에 이負擔
災民들의堪當이問題

【大邱】경북도에서는 수해근치할 방침하에 락동강류역(洛東江流域)에소화십년부터 십개년 계속사업으로 사방공사(砂防工事)를 철저히 시행하기로 작정하고 락동강연안인 달성군외 십륙개군 민간측 부역인원수는 칠백이십삼만사백팔십명으로 매인당 부과률이 이인이상이며 이에대한 매인당 오십전식 환산하여도 그금액이 삼백륙십일만오천이백사십원이란 놀랄만한 수자에 달하는데 이로말미아마 도내 일반농민간에는 부역과중으로인하야 불평이 날로놉파가는 현상인데 국토의곤경에 빠저잇는 그들이 과연 이과중한부역을 감당할는지 크게주목을끌고잇다는바 민간부역 부담의군별은 다음과갓다고 한다

▲達城郡 二五六、六〇〇名
▲軍威郡 九六、五〇〇名
▲義城郡 三九一、〇〇〇名
▲安東郡 二三〇、五〇〇名
▲永川郡 九九、五〇〇名
▲慶山郡 一五九、〇〇〇名
▲淸道郡 一一一、〇〇〇名
▲高靈郡 二七五、〇〇〇名
▲星州郡 四三九、五〇〇名
▲漆谷郡 四七九、九〇〇名
▲金泉郡 九五一、四〇〇名
▲善山郡 五六八、四〇〇名
▲尙州郡 一、一五四、九〇〇名
▲聞慶郡 四〇六、四〇〇名
▲醴泉郡 七一三、八〇〇名
▲榮州郡 五八六、三〇〇名
▲奉化郡 三〇九、六八〇名
計 七、二三〇、四八〇名

깡그리敗訴하고도 遺產을終不返還
◇…畢竟은警察署에또呼訴
叔侄間遺產問題後報

【禮山】자긔 아버지가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에게 전하여달라고 부탁한유산(遺產)을 자긔삼촌이 빼앗고『자긔것이니 내줄수업다』고하니 법정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주시요』하는 소송을 제긔하고 지방법원을 거처서 고등법원에까지 이르도록 모조리『고유산은 원고에게 내여주라』는 판결을 밧고도 우금십년이란 세월이 흘느도록 내주지안함으로 다시경찰서에 고소를제긔한 사실은긔보한바어니와 이제동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새로운 화제하나를 엇게되엿스니 익산군 함라면함렬리에(益山郡咸羅面咸悅里)거주하는 김용근(金容根)(三)은 그의아버지가 세상을 떠날때에거대한 재산을그의 친제(親弟)인김용두(金應斗)(六)(金容根의叔父)에게 맛기면서『용근이가 장성할때까지 마타두엇다가 용근이가 장성하거든 내주라』는 부탁을 바다가지고 그재산전부를 마타다왓는바 전긔 김용근이가 장성하여도 김용두는 그재산을 내여주지 안함으로 김용근은 그의숙부인 김용두를 상대로 소송을재긔하여 한동안 적지 안한 흥미를 끌고잇섯든것은 세상이 다 주지하는바이와 고등법원에서『그재산은 김용근에게 당연히 내여주라』는 판결언도를 바든 김용두가 우금 가매해동안에 종시 내여줄 생각을 하지안하고 오히려 김용근에게『내줄수업다』는 말을하게됨으로 김용근은 전주경찰서에고소를 제긔하고『고등법원에서내여주라는 판결언도가 나렷슴에도 불구하고 내주지안하니 공정한처치를바란다』고 호소를하엿스나 그여별노히 신통치가 못함으로 다시 충남옥천 경찰서에다가 전긔와 가튼 사실로 고소를 제긔하엿스나 이 또한 무력함으로 얼마전에 리리경찰서에 다 전긔 사건의 고소를 제긔하자 리리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즉시 전주읍에잇는 김용두를 호출하야 사고 다시김용근을 호출하야 건의 자초시종과 그동안의 진상을 엄중히 조사하여나오는중이라는데 지난이십삼일 오후에는 다시김용두와 김용근 즉숙질간인 그들을 호출하야 대면을 시키고 화해하도록 진행하든중 숙질사이에는 일대활극이 리리경찰서 사법실을 무대로 연출되자『우리아버지재산을 웨 안내주느냐』『못주겟다』등의 활극까지 자아내 차소위 골륙쟁탈전의결과는과연 어떠케 귀착될는지가 자못 주목된다하며 일반은 적지안한 흥미를 가지고 사건의 전개여하를 주목하는중이라고한다

撤文事件金正煥에 四個年懲役言渡
廿三日咸興法院에서

【咸興】지난 이십일 함흥법원에서 징역오년의 구형을받은 함흥긔념격문산포、조선공청재건(共靑再建)을획책한 김정환(金正煥)(二〇)에대한 언도는 이십삼일오전열시 함흥법원에서 개정되여 진판사로부터 징역사년(미결일수칠십일통산)의 판결이잇섯다한다

九校聯合運動會

【谷山】오는 십월일일에 곡산공립보통학교주최로 동교운동장에서 구교련합대운동회를 개최하는바 이거리 구교련합대운동회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임으로 크게 성황을 이루리라한다

二十萬圓巨額의 大金塊密輸團
取調곳나檢事局送致

【新義州】경성부삼각정(三角町) 김태영(金泰榮)(三)신의주약죽정공성목공소(若竹町共盛木工所) 문태양(文泰陽)(三)평북창성군 창성면성풍동(昌城郡昌城面城豊洞) 박영덕(朴永德)(三)신의주초음정(初音町)조일사진관(朝日寫眞館) 리종곤(李宗坤)(三)등은 서로공모하고 소화칠년 팔월로부터금년팔월까지 금괴를경성 흥은평양으로부터 구입하야 안동현에 밀수하야 거액의 리익을 어더왓는데 그밀수총액이 이십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사건의 전긔관계자들은 금월칠순 모다신의주경찰서에 검거되여 이래 취조를 밧고잇든바 취조가끗나서 지난이십삼일 신의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되리라한다

光州郡主催의 地主懇談會

【光州】광주군 지주간담회(光州郡地主懇談會)를 광주군청 주최로 지난이십삼일 오전십시 삼십분경에 전남어업조합련합회(全南漁業組合聯合會)이층에서 개최하엿는데 참가지주(十町步以上所有者)는 약륙십명으로로 의사상 십여건을 토의한후오후 네시경에 산회하엿다

▲懇談事項
一、小作料에關한件
(가) 小作料의標準
(나) 檢見의方法
(다) 小作料의計量
(라) 奬勵米의給與
二、小作料의輕減免除에關한件
(가) 畓에關한件
(나) 田에關한件
三、小作料納期에 關한件
四、小作料納入通知書發行의件
五、小作料領收證發行의件
六、小作權移動에 關한件
七、其他小作條件에關한件
(가) 小作料以外의小作人負擔의件
(나) 金肥代其他營農資金貸付率의件
(다) 小作料의運賃의件
(라) 小作料包裝用의件
八、小作契約改善의件
九、舍音其他管理者의弊害에關한件
十、地主와小作人共榮協調施設의件
十一、旱害地小作人保護救濟의件

法院密陽支廳 復活祝賀盛大

【密陽】폐쇄되지 만삼년반만에 부활의깃븜을 마지한 부산지방법원밀양지청(法院密陽支廳)은 지난 구월일일부터 사무를 개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지청부활긔성회(期成會)에서는 지난 구월이십이일 정오부터 동지청구내에서 관민이백여명래빈 합석하여 동지청 부활료과사와 부속청사 신축락성축하식을 성대히 거행하엿다한다

嶠南學校에曙光
千餘校友活動으로 義捐金이連日遝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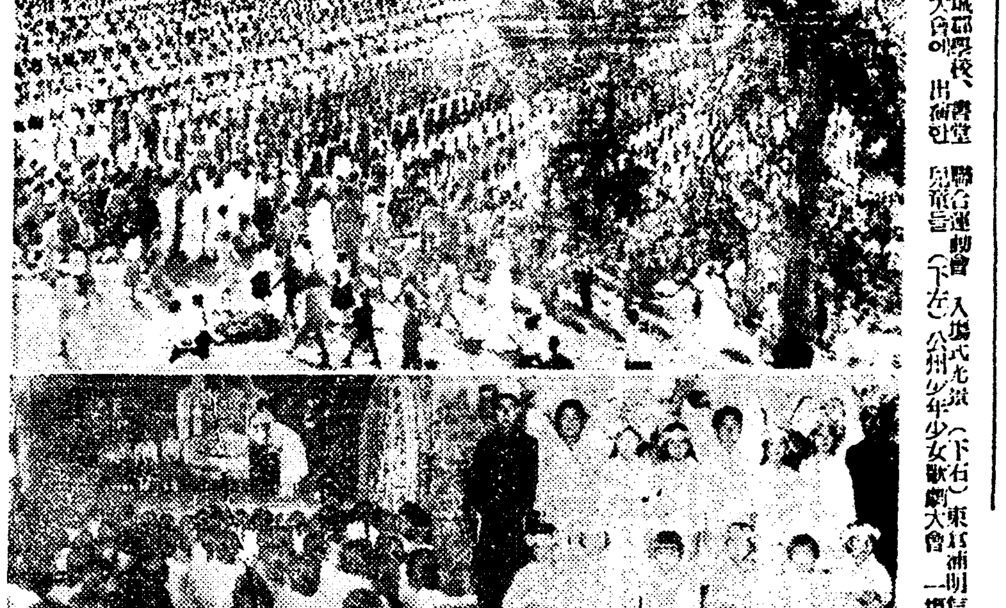
【大邱】남조선에 유일한 우리 중등교육긔관인 대구교남학교(大邱嶠南學校)가 재정난으로 비상한 궁경에 폐쇄케될 비운에 직면하야잇는 비보를 접한 동교교우회원 천여명은 모교를 부활시키고저 교우회를 창립하는 한편에 각지 교우를 련방하야 주야를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대활약을 개시하엿다는데 교우로부터 다음과 가티 모교찬조금이 련일 답지한다는데 이에 감복한 일반사회 유지측에서도 성원설이 대두하야 잇슴으로 위긔에 직면한 교남학교는 불원한 장래에 대서광이 잇스리라고한다

義捐者
朴裕宏五百圓 金致式 朴命琦 各一百五十圓 尹鶴均 金兌烈 各百圓 崔鍾遵六十圓 杜宗蔾 李蘀 崔智壽 秦習鉉 各五十圓、白永基 裵泰圭 金恩敎 張恩龍 各三十圓 金鐸子 具春壽 朴光吉 鄭七龍 李東術各二十圓 千琪燦 孫基秩 尹彝孝 盧濟永、金斗玉 李壽大 張尙守 秋茂源 各十五圓 朴元吉 孫學德各十圓 徐鍾勳 二十五圓 計一千六百四十五圓

明信學院同情 歌劇의밤盛況

【東倉浦】긔보=안악 동창명신

반도중에게 만흔호의중에서 동정을 감사하는바이라하며 이십일시반에 폐회되엿는데 일반 학원이 장래유망자제를 교육함의 뜻깁흔 의연금총액은 륙십에 더욱로력에 로력을 더하야 원우십삼전으로 주최한 각지분 일층더활동이 잇기를 바란다고 국에서는 의연제씨들의 뜻깁흔 순서로 일 한다


◇寫眞……(上)全羅城面學校、書堂聯合運動會入場式光景(下右)東倉浦明信學院同情歌劇大會(下左)公州少年少女歌劇大會 一場面

平壤 第五回關西野球大會

△時日 九月二十八、九兩日間
△場所 平鐵球場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느러가는元山府債 總額六十餘萬圓
府民一人當十一圓九十錢으로 十年度償還額六萬圓

【元山】원산부의 늘어가는 부채(府債)!이부채의 증가는 원산부민이 상환해야될 과세의증가를 의미하는것인바 지난삼월말일현재로 원산부의 부채를조사해보면 공익질옥 융통자금、경정시장개축비、정리공채、어항수축、치수비부담등 원금사십구만구천륙백칠십삼원팔십일전 이고그리자 십오만일천이백삼십륙원칠십오전으로 합계가 륙십오만구백십원오십륙전인바 이것을원산부인구 오만사천오백칠십사인에게 평균하면 십일원구십이전이되다 그리고 십년도 상환에정액만도 원금사만이천오백구십구원륙전 리자이만사천오백팔십륙원 칠십이전으로 합계 륙만칠천백팔십오원칠십칠팔전이 되여 금년도 원산부 세출총액의 약륙분자일이된다

이제 긔채목적급 그원리금을들면 다음과갓다고한다

公益質屋融通資金 一五、三〇六圓九六錢
京城市場改築費 一六、四〇六、〇五
整理公債 四八〇、九六六、〇〇
漁港修築 一四八、三〇四、〇五
治水負債 四、九二七、六六

六十錢程度로 택시料金引下

【元山】전조선에서 최고률이라고 하는 원산택시 료금인하에 관하야 저반 원산경찰서에서부내 자동차업자와 수차에 긍하야 료금인하를 타협절충하여왓든바 그간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오든 자동차업자측에서도 다소 양보하게 되여 현행팔십전 균일률을 륙십전 정도로 인하케 될모양이라는데 그실행시긔는 원산서에서 목하도경찰부에 료금인하허가신청을 제출하엿슴으로 허가되는즉시로 실시할터이라 한다

第五回西朝鮮 中等蹴球
崇商과崇中決勝에

【平壤】평양의전축구부(平壤醫專蹴球部) 주최의 제오회 서조선중등교축구대회(西朝鮮中等校蹴球大會)는 이십사일 오전열시부터 평의전구장에서 거행되엿다 작년도 우승교 광성고보(光成高普)의 우승긔와 및 결승전에 석대한 숭실학교(崇實學校)에서 본사지증의 결승배(決勝盃)를 반환한후 광성고보대 숭실학교 제일회전으로부터 개막되엿는데 이날의 전적은 다음과가트며 이십오일 오후세시반부터 숭인상업(崇仁商業)대 숭실학교(崇實學校)의 최후결승전이 열리게되엿다

第一回戰

崇中2 (2-0 / 0-0) 0光高
崇中對光高戰은 午前十時 崇中先蹴金龍燦氏 主審으로 開戰되여 前半戰2-0 後半戰0-0 結局 二對零으로 崇中雪辱햇다(競技時間 六十分)

平農3 (2-0 / 1-0) 0鎭商
平壤農業對鎭南浦商工戰은 十一時十五分부터 金麟瑞氏主審、平農킥어프로開戰하여 技術伯仲한感이잇섯스나 鎭商練習의 不足인지 連絡이缺하여 前半2-0 後半1-0計三對零으로 敗退하다(競技時間六十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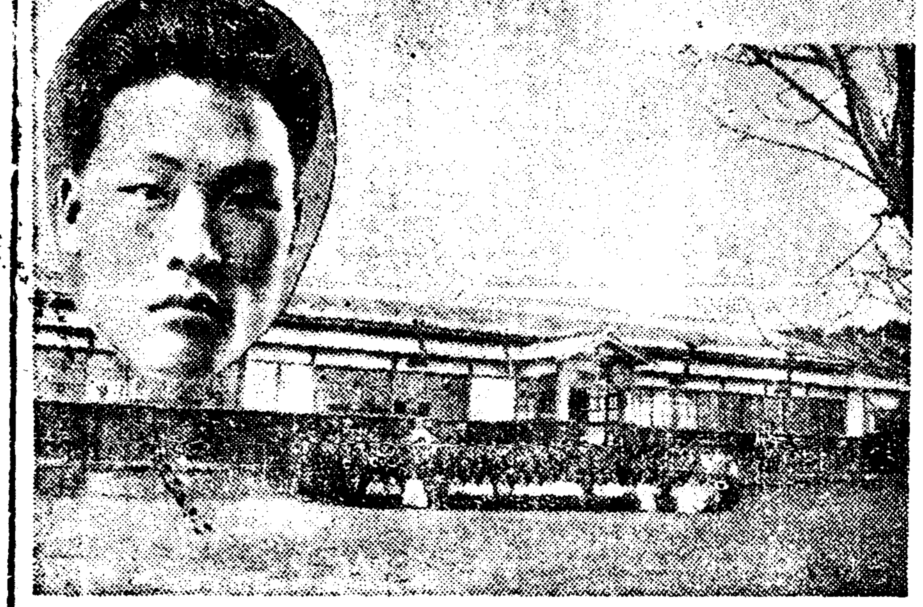
—第二回戰—

崇中2 (1-0 / 1-0) 0平高
第一回戰에서 光高를 擊退한崇中對平壤高普戰은 午後零時半부터 崇中先蹴 金麟瑞氏主審아래 開戰하여前半1-0後半1-0結局二對零으로 崇中決勝戰에入햇다(競技時間六十分)

崇商3 (1-0 / 2-0) 0平農
今春關西體育會主催 第十一回全朝鮮蹴球大會에서 優勝한 覇者 崇仁商業對 平農 第一回戰에서 鎭商을 三對零으로 勝利한平壤農業의 準決勝戰은 午後一時四十分부터 崇商킥어프로金龍燦氏主審으로 開戰하여 前半1-0 後半2-0 合計三對零으로 崇商無難히 平農을 물니친後 決勝에 드러가 崇中과 對戰케되엿다(競技時間六十分)

地方人事

▲黃龍雨氏(漆谷郡屬)赴任人事次倭館支局來訪
▲原田啓藏氏(漆谷郡產業技手)赴任人事次倭館支局來訪
▲崔龍壽氏(漆谷郡屬)赴任人事次倭館支局來訪
▲諸田謙界氏(裡里邑長)新任人事次 本報裡里支局來訪
▲韓昌熙氏(永登自動車商會主)開業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朴致鎬氏(廣濟病院長)開業人事次同上



私立初等學校巡禮 (5)
새主人을마지한 集成學校의盛運
特色으로는同窓會의活動

鎭南浦支局 一記者

【鎭南浦】진남포부외 덕동시(德洞市)에 삼십년의 참담한 눈물겨운 력사를 가지고잇는 초등교육긔관이잇스니、즉사립집성학교(集成學校)이다 동교는 구한국융희사년에 당시면장 현긔선(玄基善)씨외 제씨의 알선으로면내팔개리에잇는 한문사숙 재산합천이백여원을 합하여가지고 학부의 허가를어더 창립한후 면민의힘을 합하여 일운회교라하여 집성의 교명을 가지게 되엿다고 한다 면민전체가 동교를 운전케되엿스니만치 교운은 날로왕성하여 대정이년에 총경비일천칠백여원으로 삼십여간의 교사를 신축하엿는데 역시면민들은 서로다토아가며 부역에출동하엿다고한다 그리하야 면내의 한문사숙부를 폐지한후신학문학교를 창립하엿고 굉장한 교사까지 신축한후 대정 삼년에 이르러 목개세(牧蓋世)란 일본 내지인이 학교간부의 한사람으로 잇섯든바 조선인 간부들과 의견이충돌되여 결국집성학교는 일시목개세라사람의개인경영으로 되다십히독단처사를하게되엿다고한다 그리하여 면민들까지 학교에대한성의가 업서지게되여 대정륙년에와서 교운은 말할수업시 쇠약하게되여 백여명이되든생도는 십여명에 불과하게되고 학교긔본금으로잇든 오백여원도 전부소비 하야버렷슴으로 자연폐지할운명에이르럿든것이다 당시설립자조긔형(趙基亨)씨는 백방으로 동교의운명을위하여 연구한결과 당지긔독교에서 경영하는 대성학원(大成學院)에 경영권을넘기게되엿다 이로서 동교의생명은 다시소생되어 교회측에서 교장으로 차병표(車炳彪)씨를 선정한후 김희주(金熙周)리근홍(李根弘)등제씨와 협력하야 퇴락한교실전부를 대수리하는동시 교원으로숭실출신 박광복 리원노량씨를 고빙한후 생도팔십여명을 모집하여 갱생의길을 것기시작한것이다 그후학교당국자들과 수백의교도들이며 면민전체가 다시 새열성을 내여 흥은금전으로 혹은몸으로 동교를위하여는 무엇이나 희생하여가며 일심단결하여 경영케됨을 따라 생도는 이백칠십명이나 되엿다 대정십년 당시에 공립보교가 설립되면서 생도수도 좀 적어 짐을 따라 여러가지로 다소의 영향을 밧게 되엿다 그러나 학교당국자들은 일층 성력을 다하여 일변 리사회(理事會)를 조직하여 가지고 활동한 결과 이삼년래 생도수도 회복되고 교세도 점점새로워 금년새학긔부터 륙학년 연장인가까지 엇게되여 당당한 교육긔관으로 활긔를띄내고잇는것이다 도라보건대 동교가 오늘의희현한 력사를 빗내고잇든것은 동교를 위하여 일생을 밧치엿다고해도 과찬이 아니라고할만한 고차병표(故車炳彪)씨의 적성이며 십유여년간 허다풍상을 겨거가며 노력한 교장 박광복(朴光福)씨를 비롯하여 리사측으로 李仁珪 玄基鎬 金熙周 李根弘 金志侃 魯鳳翰 吳命杰외제씨와 수백여 교도들의 눈물겨운 결정이라고 하겟다 동교는 금춘이래 가입중 새로운 활긔를 엇게되엿스니 신설립자 조봉익(趙鳳益)씨를 마지하게된것이다 씨는 진남포부내 양신상회(養信商會)를 경영하는 청년실업가로 금춘 륙학년 연장된을 따라 교실이 협착함으로 사재 수천여원을 드려 교실을 증축하는동시에 운동장을 대확장하는중이라고하며 머지안흔장내에 수만원예산으로 교사신축을 계획하고 잇다고하니 동교의장래는 실로양양하여 만세반석우에 서게된것을 밋는다 동교의 최고긔관은 리사회로서 鄭顯洙 魯鳳翰 崔昌信 趙基亨 玄基鎬 金熙周 李根弘 李仁珪 趙鳳益 林耕一 車應燮 등제씨가 리사로 활동중이며 경상비로 설립자조봉익씨가 매달 십오원식 부담하고잇는데 현재 생도수는 이백오십여명으로 신임교장 최승걸(崔昇杰)씨 지도미테 열심히공부하고잇다 동교의특색은 동창회의 활동인데 회원이 일백팔십여명으로 중요간부 車應燮 林耕一 趙鳳益 金啓植 외제씨의 활동으로 학교긔본금 적립에 노력중인바 벌서 이천여원이 적립되여잇다고한다 생각컨대 동교는 오로지 우리의 힘과땀으로 굿게엉켜진 결정체로 더구나 농촌에서 보기어려운 교육긔관이라 우리의자랑거리인동시에 과거삼십년간 동교를위하여 희생적으로 로력하여주신 여러인사들의 적성이 억만년사라지지 안흘것을 밋는일방 동교의 운명을 걸머지고 나아가시는 학교당국자들은 생사를집성과가티 하여 씩씩한 총준자제를 수업시기여 주옵소서 비는바이다 ◇寫眞은 集成學校校舍全景과 設立者 趙鳳益氏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흔약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사가 절대로 보증하는、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과대학병원
에서 최고치량약으로서 찬양사용하며、또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十六名을 委員으로하야、愼重審議한後、그品位를定하야 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 그우에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

이잇는 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하야、何等의 副作用이업도록 配劑한許可濟의 公認治淋劑이다

따라서 그약효의 절대함은 다년 림상실험의결과 의약학계에서 철저적전치약으로 추장을밧게되엿스며『이이상가는 약은업다』고하는 절대적신념을가지고 정제한것이다 그리고 약효에대하여서도 무효한때에는 돈을도로드릴것이니 별별치료를다하야 보아도 효과가 업는환자는 하로밧비이약으로전치하십시오

藥의有効無効는 小便을보면判定된다

림질환자는 여러가지료법에 미혹되야서는 안된다。제일주의할것은오좀이다。보통우리가 림질을 알어낼려면、소변을 컵에다바더 보쪽、실낫가튼것이나 몬지가튼것이 떠다가러안젓다한다。즉 그것이 림사(淋絲)다。아무리 약을먹고 주사를할지라도、컵에 오좀을 바더보와、실낫가튼 림사(淋絲)가 곳적어지지안흐면 효력업는것이다。그럼으로 소변을 보와림사(淋絲)가 떠러진약을 먹지안흐면 안된다。약이효력잇스면 림사(淋絲)도 적어지고、몽롱도 업서지며、고통도 잡히여전쾌의 목적을달할수가잇다。

梅毒

本社創製의 梅毒藥은 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 皇漢梅毒藥數種을 主藥으로하야 副作用이 絶對업는 出願許可濟公認驅梅劑로서

초긔의감창、가래톳의 치료는 물론、제이긔전신매독、잠복매독、유선매독、매독성루마지스등도 본제의내복으로、곳 배독작용(排毒作用)을 하며、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 전신증상이 점점히바하여저서 치병의 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을 자손에게 유전치안토록 하로라도 밸리보사의 구매제(驅梅劑)를 복용하야 고치시라。

림질 별제(팔일분)팔원 특제(팔일분)사원
매독 별제(십칠일분)팔원 특제(십칠일분)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三六三番
振替京城二三一五六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책임제약임으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좌의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郵便本局前 有田도락구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龍山練兵町 有田도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仁川宮町二 有田도락구
大田榮町一 有田도락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驛町 有田도락구
馬山京町三 有田도락구
麗水港 有田도락구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碑石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榮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三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安東縣四番通 有田도락구
奉天驛前 有田도락구
撫順東大條 有田도락구
開原新市街 有田도락구
四平街倉盛路 有田도락구
新京東一條通 有田도락구
哈爾賓傅家甸 有田도락구
大連越後町 有田도락구

滿鮮發賣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回効散
頭痛 齒痛
頭痛과 齒痛에
効力이迅速하고評判잇는回効散은 神經痛에도가 장特效잇다고하야 어느藥店에나最近에는굉장하게팔인다
理論보다證據라니 한番試用하시라
本舖 森川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高麗人蔘 開城白蔘種子
朝鮮開城府北本町
元祖人蔘商會
電話二二番 振替京城八七三七番

漁具
定價表進呈
極上麻 五分目 二寸目 金八圓也
四分目 二寸目 金十圓也
絲投網 捕鳥網 三間 金參圓也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漁具商 秋岡商會
電話本局四三一九〇 振替京城二一一五六

추탕은 兄弟酒店
京城府東大門外崇仁洞一九九
支店은 永導寺入口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 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痔는
手術안코 오세로 オセロ치의 藥으로곳치라
全國各藥店에잇슴 0.31 0.50

肥滿劑
身體肥瘠한데여러가지療養도無効하야困難하신분은「藥書」로申請하면 無害히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區新堀町七十一 小川藥院

不動產賣渡廣告
城津郡城津邑旭町

地番	地目	地積
一ノ一	田	五八坪
一一ノ一	田	一五五坪
一三ノ一	田	四一九一坪
二三ノ三	田	一七〇坪
三三ノ三	田	三三〇六坪
山 一六	山林	一町一段
山 一七	山林	五町一段七
山 一〇	山林	六段一

右不動產은城津邑旭町三〇番地具禮善의所有인바今般事情에依하야拙者가委托을맛고此를賣却하려고하오니 希望者는本年十月七日까지拙者에게見積書(田、山林、林野別로하야)를郵送하시오、相當한價格에達하는분에게十月十五日賣渡通知를하겟습니다(但田、山林、林野를各各一組로하야賣渡할수도잇습

昭和十年九月二十一日
城津邑旭町四九五 裵禮任

九月廿日낫부터 特徵機關RKO社二大名篇超特級篇
初秋第一企畫獨占封切
每日三回 正午十二時、午後三時 午後七時半
RKO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匠죤、부라이스든監督
리리안하뷔이 氏明朗的主演
죤·보-루스、에루·부렌달助演
音樂喜劇映畵 背叛한입술 全十一卷
本年度超特作의音樂喜劇映畵로서其麥의神韻(긔즘)은全卷을通하야넘치게되엿다고말할수잇다
RKO社超特作品全發聲日本版
LM·몽고매리이女史原作
新銳죠-지니고라스氏
精魂을傾注한監督術法
純質情况안、샤-레이孃등、부라운主演
鄕土藝術 女篇 紅雀 全十二卷
崇嚴한一片農村에正雅純朴한鄕的情緖를그대로그려내인鄕土藝術의精華篇
仁寺洞 龍光二六二 朝鮮劇場

影 그림자
撮影……李信雄 字幕……陽明影
羅雲奎、尹逢春 主演
李錦本 金元浩 林生員
全世鐸 玄芳蘭 林容九
白銀波 權英子 助演
羅雲奎氏의一生一代의技能과力量을發揮하여不朽不滅의大作
萬人渴仰의朝鮮名畵大封切
九月二十四日부터超特別大興行
朝鮮키네마社超特作大雜篇
原作脚色監督…春史

黑潮에우는마음
코롬비아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아-루·켄돈氏
잭·에드몬드로-氏 후로렌스·라이스孃 主演
코롬비아會社特作全發聲大活劇
監督아-루·하이氏
킹 호-스
天下名馬렉그스
도로시·압풀파이孃 윌니암잰니- 主演
貫鐵洞 龍光三九五 優美館

九月二十四日낫부터特別大公開!
特別料金階上卅錢階下二十錢均一!
十曜日曜祭祀日은晝夜二回
하낫一時밤七時半始映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氷과가슴흔戰慄!!火와가슴흔興味!!
探偵怪奇大活劇 透明人間 全九卷
監督…점스호엘氏力作品
主演…구르드·레인스氏
구로리아스쥬아-트孃
◇映畵의驚嘆할威力이생긴世界의戰慄!!透明人間이나타낫다亂舞의限이업다!!底知못할몸을氣分나부의게날된다!!
코롬비아社特作日本版撮影
監督…로이윌이암닐氏
主演…리차드·구롬엘氏
도로시웰손孃
大都映畵社超大作品
人情悲劇 南地의女子 全八卷
監督…吉村操氏
主演…佐久間妙子孃
雲 全七卷
麻浦桃花洞 電龍 一三三 桃花劇場

自由市場廢止는 當分間絶對不能

群少製系家爲해서도必要하고 市勢間接牽制도必要

蠶業篇 (七)

賣繭取引의 方法으로 大製絲業을 中心으로한 共同販賣制外에 個人取扱 이란것이 잇다 共同販賣는 總督府에서 府 當局者間에 協定된「指定」에 依하여 算出된 價格으로 一定한 共同販賣 期間 內에는 共同 販賣市場에 出廻하는 繭量의 多少를 不問하고 販賣者의 要求대로 全部買受 치 아니하면 안되는데「個人取扱」이라는 것은 各道 當局에서 交附된 鑑札을 가진 一部 (指定) 商人이 共販時期를 지나서 任意로 賣買를 하는것을 意味한다 個人 取扱者中에는 朝鮮製絲協會의 大資本의 製絲家를 除한 群少製業家와 當局이 認定하는『善良한仲介商人』들로 이것도 各道의 事情에 依하야 道知事가 그數를 加減케 되엿다。

◇

特히 制限된 人數이나마 이와가튼 個人購繭을 두게한것은 取引上 一般的原則에 依한 販賣人과 購買人의 自由意思를『어느』程度까지 尊重하여 共同販賣制 때문에 이러날 强力的 販賣統制에 對한 不滿의 空氣를 緩和하는 方途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製絲協會員以外의 群山製絲계 原料繭을 供給하는 한方途가 되는것이다 그런데 最近 存廢問題까지 論議되고잇는 自由市場 이란것도 말하자면 前記의 鑑札을가진 個人購繭者의 活動區域을 이름인데 即 京城과 大邱에限하여서는 共販時期의 制限을밧지 안코 언제던지 賣買를할수잇게된것이다 이兩地를 指稱하여 自由市場이라는것인데 自由市場存置理由도 前記한바와가티, 各自의 取引의 自由를 認定하는 同時에 畸形的이지마는 需給關係에依한 市場의 公正을 維持하며 또 群少絲家에게도 原料를 提供한다는 意義를 가젓다는것이다

◇

現在 個人取扱의 繭販賣量을 보면 前日에도 記載한바잇거니와 그量은 總生産量의 部分에 지나지못하는 것이고 그大部分은 自由市場에 나오게되는데 從來의 數量으로보면 京城의 四萬貫 大邱의十萬貫假量으로 今春에는 大邱가約五萬貫이엇다 그러고 그市勢로보면 大邱서毎貫最高三圓三十錢 普通三圓四五十錢假量이어서 共販市勢와의 差異는 約四五十錢이나 더하다 鄕村養蠶家로보면 市場에까지나오는諸費用이 多少잇스나 얼마만큼 有利한것이 事實이고 또 그만큼 共販市場의購繭者는 共販制에 依한 利를보기는하나 乾繭費며 또 農會에 바치는 購繭手數料를 除하면 差異나는 市勢의 余額이 全部 利로 돌아오는것은 아님으로 그리큰利益을 보는것은 아니라고도한다 그러나 이것은 零細한 小養蠶家 個個人의 利害關係로만 보면 그리큰것도 아니라할것이나 多數小小養蠶家를 支配하는 共販市場의 購繭者의 立場으로보면 自由市場과의 市勢의差에서나오는 利는 巨大한것임을 알것이다

◇

그래서 自由市場近方의 農家에서는 共販에 가기를 避하고 自由市場으로 나오는것이 만타 都市로 (京城이나 大邱)나와 팔고가면 달은物品을 購得함에도 便하고 共販과의市勢의 利差는 車費等이 되고남는까닭이다 그結果는 自然 共販에 對한 不平을 놉히는理由도 되고 한편으로 原料繭의 不足을 크게느끼어 今年은 繰短까지하게된 製絲家들은 共販市場에 繭出廻가 多少라도 적어갈것을 念慮하야 自由市場의 廢止를 謀策하게까지 되는모양이다 그러나 自由市場이라는것은 群少製絲家에게 原料를 提供케한다는 重要한 理由가 잇슴으로 總督府當局으로서는 當分間 製絲家의 意向만을 쫏기는 어려울것이다。그代身 今般 發令된 朝鮮製絲令에 依하면 製絲工場으로 大小의 制限이업시 一年以上作業할때는 限制케한다는 條文을 밝히하여 製絲業의 大企業化를 目標로하고 群少製絲家의 存立을 그리 반갑게역이지 안는다는것은 他面에 自由市場의 必要도 압흐로 漸次 減해진것만은 豫斷할수가잇다。

◇

그러나 現在로서는 確實히 自由市場存置의 必要와 理由가 充分히잇다 群少製絲家를 爲하는外에 市勢로도 共販市場을 牽制하는 任務가 또 적지안타 그것은 自由市場의 購繭家도 大體는 共販市場의 市勢를 標準으로하고 잇기도하고 또 自由市場의 市勢가 共販市勢를 直接 左右할 힘도 업지만은 共販市場의 空氣와 一般市場의 心理上 影響하는바 牽制의힘이 업슴은아니다 이點으로도 間接으로는 自由市場이 共販市場을 牽制하는 效果를 안나타내인다고는 할수업슬것이다 (續)

特派員 洪鍾仁

◇寫眞은共販에모여든群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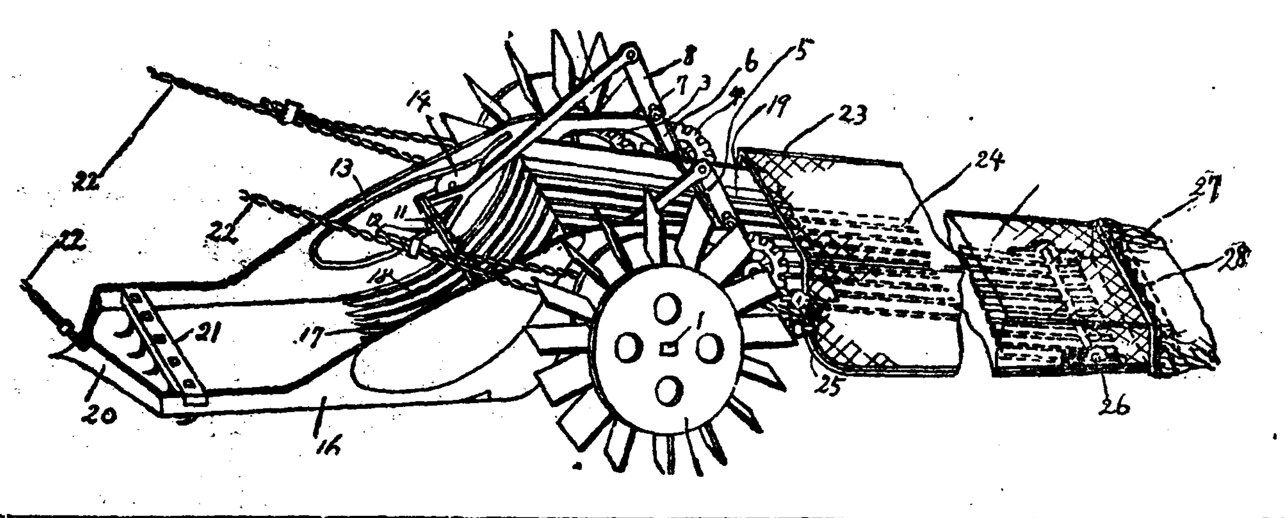
産業의本陣을차저서 (十)

採貝에劃時期 貝類採取機發明

海中의貝類를船上에서採取

우리의손으로 貝類採取機를 發明하얏다는 消息─在來의 貝類採取는 바다人들이 전後 손으로 採取하야 水底의 貝類에는 손을 대이지못하고잇섯는데 今年五月에 黃海道海州郡青龍面南娚里一三六金殷哲氏는오래동안 苦心研究한 貝類採取機를 特許局에 發明特許를 出願하얏든바 마침내 九月六日附 特許出願公告第三七七六號로 公告되어特許될은 의심업스리라하며 이것이 實用되게되면海底의 貝類를 모조리採取하게될터로採貝界에 革新을 이르키리라한다 이제 이 機械作用의 要領을 摘記하면 이機械를 船上에서 海中에 投入하고 單純히 直線的으로 를프를 牽引만하면 이 機械가 海中에서 自動的으로 複雜한運動을 이르키어 海中에 棲息하는 貝類를耕起하고 이耕起된 貝類를 이機械末端에 連結한 籠狀網속에 너케된것인데 이發明의 特異한點은 複雜한 運動이 이機械의 板狀翻이 海底에 揷入되여生하는 抵抗力에 依하는것과 또牙狀擊에 依하야 露出된 貝類를 籠狀網에 揷入하는類似楕圓形滑의 作用이라한다

(寫眞은金殷哲氏)



貝類採取機斜面圖

夏秋繭共販狀況

▲靈岩【靈岩】지난十一日부터 靈岩郡內各販賣所에서秋繭共販을 開始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販賣開始以後의 繭價는好調를 示하야 毎日昇騰하고잇서 販賣初日보다 特等七十七錢 一等七十錢 二等六十三錢 三等五十六錢 四等四十九錢식을 낫스며 二十日現在出廻高가 一千二百貫에 達하는바 一般繭家는 活氣를띄고잇다는대 二十日現在의各販賣所等級別價格은如左하다고한다

等級	金井新北販賣所	邑內德川販賣所
特等	四、二九錢	四、二五錢
一等	三、九〇錢	三、八七錢
二等	三、五一錢	三、四八錢
三等	三、二二錢	三、〇九錢
四等	二、七三錢	二、七〇錢

▲固城【固城】慶南固城郡下 固城 背屯洞 鷄林等 四個所에서는去二十一日부터 秋蠶繭共同販賣를 開始하엿다는데 그價格은 다음과갓다

等別	普通繭	改良上繭 (一貫當)
特等	三、八〇	三、九一
一等	三、四五	三、五五
二等	三、一一	三、二〇
三等	二、七六	二、八四
四等	二、四二	二、四九
等外	二、〇七	
中繭	一、〇九	
下繭	四七	
玉繭	一、三八	

▲盈德【盈德】慶北盈德郡農會에서는 去十六日부터 盈德、寧海、知品三處에 蠶繭共同販賣場에서 秋繭共同販賣를 開始한바 蠶種二千十餘枚交付中 氣候關係로 收繭量은 減小하엿스나 比前價高하야 最高一貫에 四圓十錢까지販賣되엿스며 同二十日까지 出廻된 數量과 現時價는如左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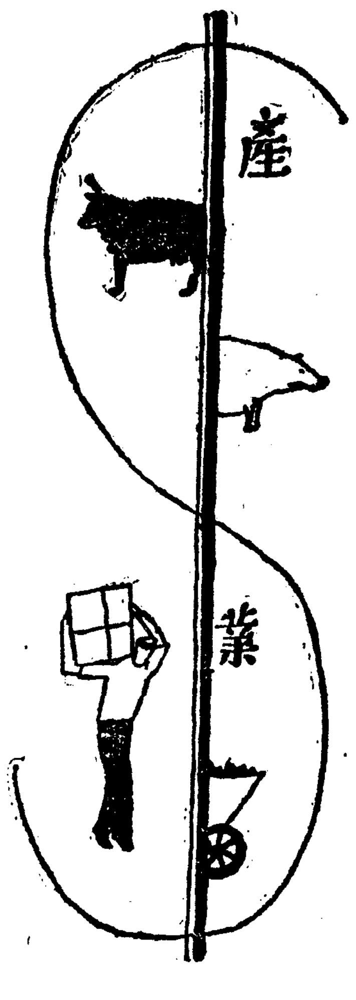
盈德面 一七〇〇貫 寧海面 五五〇貫 知品面 七〇〇貫

▲特等 三、七七錢▲一等 三、四二錢▲二等 三、〇七錢▲三等 二、七二錢▲四等 二、三七錢▲等外二、〇二錢▲玉上二、〇二錢▲玉下 一、三三錢▲屑上一、五〇錢▲屑下 一、一五錢

四檢疫所開所 十週年記念式擧行

大正十四年 朝鮮에 移出牛檢疫所가 創設된 以來 今秋十月로 滿十個年을 經過함으로 元山、城津、鎭南浦、仁川의 四檢疫所에서는 左記日程에 依하야 開所十周年記念式을 擧行하기로되엿는데 總督府에서는 西龜衛生課長이 出席할터이다

▲元山十月六日▲城津十月八日
▲鎭南浦十月十日頃▲仁川未定



豐山棉花共販 二十四日부터開始

【豐山】慶北安東郡豐山共同販賣所에서는 郡農會斡旋으로 去二十日부터 棉花共販을 開始하엿는데 等級과 價格은 如左하다고한다

一等 十六錢五厘
二等 十五錢六厘
三等 十三錢九厘
四等 十一錢三厘

京畿以南海岸에 大蛤을積極獎勵

西海岸의種蛤을移植

近來 大蛤은 料理의原料로 그需要가 增加되고잇는바 平南北沿岸은 捕獲期가되면 一人當月捕獲이 五十圓乃至六十圓에 達하는데도잇서 漁村現金收入의큰根源이되고 잇슴에 微하야 水産課에서는 從來 大蛤이 全無하든 京畿道以南의海岸에도 그繁殖이 可能함을 調査試驗하고 今後 大大的으로 增殖奬勵를할計畫이라는데 種蛤은 大東江河口와 黃海道龍頭浦等地의 優秀한것을 移殖할 豫定이라한다

延白泥炭에서 重油採取計畫乎

◇滿洲方面에서照會頻頻

【海州】延白을 中心으로 生産되는 黃海道의 泥炭은 그곳 貧民階級의 副業으로써 年産 一萬圓의 採取를 해오든터인데 最近 滿洲의 機業方面에서 그採取狀況에對한 照會가 頻繁한바 或은 泥炭에서 重油等의 採取를 計畫하는것이나 아닌가하야 注目되고잇다한다

伊에紛爭으로 工業鹽輸入遮斷?

滿洲鹽으로代用計畫

【奉天】伊에南國의 紛爭으로因해서 各國財界에까지 其影響이 波及되여 確實히戰爭景氣를 現出식히고잇는바 從來日本의 工業鹽은 其需要量의 五割乃至六割을 事件의中心地인 伊領土 소말리랜드 에리트리아等地에서 供給을 밧고잇섯는데 今後國交切迫과함께 必然的으로 工業鹽輸入이不可能케되리라고 豫想됨으로 滿洲國鹽政當局에서는 今後 日滿經濟提携의 便利를 圖키爲하여 多少의 犧牲하는點이 잇드라도 極力輸出을 實行할 方針이라는데 今年度 生産高는 百五十萬피쿨에 達할터로 日本의 需要額에는 滿足하리라하며 其外로는 渤海沿岸鹽田의 整備休止鹽田復活等 日本으로 大量輸出의 具體化를 圖코저 研究를 거듭하고잇다한다

農業諸團體를網羅 中央會設立準備

滿洲國의農業指導策

【奉天】滿洲國內農業者의 經濟的又는技術的으로 向上進步를圖키爲하야 國內各種農業團體의 連絡과統制를 行하는 機關을 設置하고저 滿鐵과 關東州當局이 中心이되여 研究를 거듭하고잇는바 이지음其大體의 成案을어덧슴으로 지난十一日午後大連滿鐵俱樂部에서 關係當局者가 會合하야 具體案을 協議한結果 右를滿洲農業團體中央會라는 名稱으로 近近 創立總會를 開催하기로되엿는데【關東州】附屬地及滿洲國의 農業團體를 包含한 組織으로 事務所는 大連에두고 役員은會長 副會長 專務理事各一人外에 理事評議員 監事等若干人을任命하야 主要事業으로써

1、農業經營資金의 融通及斡旋
2、農業生産品의 販賣及斡旋
3、農業用品의 購買及斡旋
4、會報 農事用書及市況通報等의 刊行及販賣

其他의 事業을 行하려는것으로서 아즉 封建的의 域을脫치못한 滿洲 農業界에 科學的經營에依한 合理的指導를 興하려는 것으로서 其設立은 各方面으로부터 注目되는바라 한다

苹果聲價宣揚次 輸移出品을檢査

元山果物組合에서今年부터施行

【元山】年産五十萬貫을 突破하는 元山德源의 苹果及梨栽培는 附與된 適當한風土에 加勢되여 年年增産의 一路를 것고잇는데 同地方 一段步以上의 果樹栽培業者로 組織된 元山果物同業組合員은 二百十二名으로 其面積만도 二百四十餘町步에 達한다는바 同組合에서는 今年부터元山苹果의 聲價를 世上에 宣揚하는 한편 專業果樹栽培者에게는 大할目的으로 道外搬出의 移輸出品에는 一一히 檢査를하고 各等級을 査定한다는데 今年度移輸出 豫想高는 約十餘萬貫으로 阪神地方에는 紅玉國光이 北滿洲地方에는 倭錦이主로 移出된다고한다

이러케 移輸出苹果檢査로 一般生産者의 得失을엇어보면 專業果樹栽培者에게는 大好評이고 副業者에게는 그다지 조치못하다고한다 웨그러냐하면 專業者는 一貫에一錢의 手數料支拂이잇스나 그代身元山의 苹果에對한 信用을 一般需要者가 알게되여 元山苹果의 聲價가올으기 때문이라고하며 副業者는 多種移輸出이 업기때문에 別利益을 感치안는다고한다

躍進! 咸南鑛業

九月末現在鑛區四百三十六區 面積이二億六千九百七萬餘坪

【咸興】躍進하는 咸南의鑛業! 九月末現在 咸南道産業課의 統計에依하면 道內에잇는 鑛區는 全部 四百三十六區로 그面積은 二億六千九百七萬餘坪이며 現在 採掘中의 鑛區만이 二百二個에 面積一億一千六百八十七萬餘坪에 達한다는데 住民들의 鑛山熱은 해마다 더해가는 現狀이라고한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一三八	金銀銅鑛	慶北安東郡吉安面	九月五日	大邱府德山町 文龍鎬
一二一三九	金銀鑛	慶南山淸郡[illegible]面	同	晉州郡[illegible]洞面 代表者 朴奎鎬 同晉州邑 朴在約 同水口町 鄭龍合
一二一四〇	金銀鑛黑鉛	平北泰川郡長林面	同	平壤府[illegible]岩里 代表者 金允[illegible] 平原郡[illegible]花面 朴洪九
一二一四一	金銀鑛	京畿開豊郡北面、黃海金川郡古東面	同	金川郡金川面 金萬得
一二一四三	水銀鑛	平南孟山郡玉泉面、德川郡、[illegible]島面	同六日	奉天[illegible]町 代表者 鈴木東洋男 大連市[illegible]浦町 荻野[illegible]亨
一二一四四	同	同孟山郡封仁面	同	同
一二一四五	金銀鑛	全北全州郡雲洲面	同	全州郡全州邑 山崎高一
一二一四六	同	同任實郡館村面、[illegible]壽面	同	任實郡任實面 朴世奉
一二一四七	同	江原金化郡岐梧面、淮陽郡淮陽面	同七日	京城府西大門町 森吉次郎
一二一四八	同	京畿抱川郡永中面	同	抱川郡西面 文商圭
一二一四九	金鑛	咸南安邊郡衛益面	同	京城府茶屋町 金日權
一二一五〇	金銀鑛	同定平郡長原面	同	咸興府新興町 代表者 金基坤 新興郡元平面 魏善煥 咸州郡西湖面 朴禮國
一二一五一	同	江原伊川郡龍浦面	同	京城府淸進洞 鄭明善
一二一五二	同	京畿安城郡瑞雲面、忠南天安郡笠場面	同 九日	安城郡孔道面 申壽鉉
一二一五三	同	平南順川郡慈山面、平原郡公德面	同	東京市麻布區富山見町 代表者 宍戶平藏 同 八木ヨシエ
一二一五四	同	慶南河東郡靑岩面	同	梁山郡梁山面 姜鳳熙
一二一五五	同	慶北永川郡華北面	同	永川郡華北面 代表者 曺相俊 同 高濟煥 同 南廷國 同 曺英煥 同 曺再萬 同 鄭源根 同安川洞 曺由煥 同三昌洞 曺守煥 同 曺用煥
一二一五六	砂金	黃海海州郡雲山面	同 十日	平壤府新陽里 金相萬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〇五九	京畿江華郡內可面	九月三日	京城府觀水洞 代表者 李惟一 同內資洞 崔奉燮
八九五六	同楊平郡砥堤面	同 四日	同積善洞 代表者 權彝五 同漢江通 松本武
一二一一六	慶北義城郡義城面、舍谷面、金城面	同	同本町 朝鮮製鍊株式會社
七六九四	江原原州郡富論面、建登面	同	東京市麴町區 東洋拓殖株式會社
八八〇四	同富論面、建登面、貴來面	同	同
一〇九一六	同貴來面	同	同
一〇九一七	同	同	同
一〇九一八	同	同	同
九七五二	忠南天安郡成歡面、笠場面	同 五日	群山府江戶町 伊藤忠孝
一六八二	全南寶城郡福內面、普洞面	同	寶城郡彌力面 朴吉桂
四二四三	同文德面	同	東京市世田ケ谷區 川田小三郎
一〇七九八	同	同	同
九六一四	黃海谷山郡下圖面、上圖面	同	谷山郡東美面 韓龍澤
四五一〇	平南成川郡大邱面、陽德郡雙龍面	同	鐵山郡站面 代表者 鄭宗和 同 新義州府榮町 朴龍雲
八四九四	同	同	
八六〇九	同	同	
九三八六	全北井邑郡所聲面、德川面	同六日	京城府本町 梶原增夫
三三六二	慶北星州郡草田面	同	東京市麴町區 龍鳳鑛業株式會社
九三八九	江原平康郡檜津面	同	平康郡高揷面 金允玉
一一三九九	同高城郡水洞面	同	京城府蓬萊町 田中和市
一〇一八九	同蔚珍郡溫井面	同七日	同唐球洞 代表者 張守興 英陽郡英陽面 權國欽

鑛務一般及出願手續

和順鑛務所

京城鍾路

(和信商會越便)

電話光化門局2659番

特히伸圖設備가完全하오며地方便宜를圖키爲하야通信事務를取扱함

早稻田大學 新學年 校外生大募集

獨學을志望한 青少年諸君!! 此機를勿失하고左의講義錄을읽으라

讀者는모다早稻田大學校外生으로待遇함

入學資格은 普通學校卒業

詳細는見本을보시라

光輝잇는早稻田大學校外生의制帽、이外에洋服단추、襟章男女別의徽章等이잇슴

中等學校程度

講義	月謝	期間
中學講義	月一圓	前期後期各一ケ年
商業講義	月一圓	一ケ年半
女學講義	月一圓	一ケ年半
電氣工學豫備講義	月一圓	一ケ年

專門學校程度

講義	月謝	期間
文學講義	月一圓廿錢	一ケ年半
法律講義	月一圓廿錢	一ケ年半
政治經濟講義	月一圓廿錢	一ケ年半
建築講義	月一圓廿錢	一ケ年半
電氣工學講義	月一圓廿錢	一ケ年半

內容見本進呈

自己의希望講義錄名을葉書로明記하야곳申込하시라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一三・電話牛込三四五